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인내심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審 살피갈 내일!
: 살필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2019

08

Vol. 519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2019.08



'인내심'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건디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성장은 고난과 역경을 건디는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 온 순간을 돌이켜 보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힘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번 호 월간 <교정>에서 인내심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8월호 (통권 519호) 63권 8호

www.correction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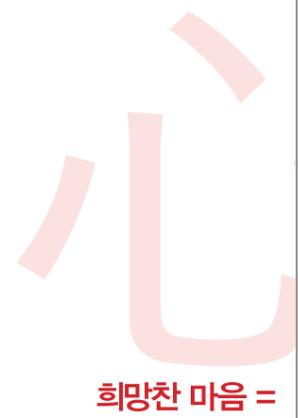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여야 한다

08 사람을 읽다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대표 발의 정성호 국회의원

12 역사를 품다
어벤져스 헬크를 탄생시킨 800번의 도전 마크 러팔로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인내심'

16 교정은 행복을 싣고
소소한 일상에 피어난 행복으로 큰 추억을 공유하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20 영화 같은 하루
수륙양용차 타고 우리 가족의 첫 추억을 새기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손형준 가족)

24 일상 상담소
칭찬보다 더 어려운 제대로 사과하는 법

26 마음 나침반
당신은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가요?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공공직업훈련소를 살펴보다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 그리스 산토리니 +사진 찍을 때 유용한 영어 표현

34 신조어백과
띵언 & 어그로

36 글로벌 핫클릭
노르웨이, 재범 막는 할덴 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의 멘토·롤모델 외



살펴갈 내일!

38 여민 교정
CJ ENM 오픈 작가 서울동부구치소 참관

42 HEADLINE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캐릭터 교정본부 '보라미' '보드미'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어느 교도관의 기도
나의 웃음

46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48 교정을 말하다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관련 착안점(下)

54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1 모범공무원 소개

62 국민이 전하다
오래전 우연히 만났던 교정공무원을 떠올리며 외

64 낱말퀴즈

65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메모 기술

66 독자의 소리



도미노 타일을 세우는 놀이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잠깐 방심한 순간 도미노 타일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도미노를 완성하기까지 몇 번이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미노 타일을 세워 보세요. 손끝의 움직임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조심스럽게 시도했던 처음의 경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도미노 타일을 두 번 이상 세우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내능력이.
무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기 마련이다.”

- 사디(페르시아의 유명 시인) -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여야 한다

우리는 '의무의 삶'에 치중하며 살았다. 권리는 그저 선언적 의미로만 학습되었을 뿐 정작 '자유로운 개인'의 구체적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별로 없다. 우리는 모두 노동하며 산다. 그러나 내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거나 억압 혹은 착취되었을 때 어떻게 비판하고 저항하며 맞서 싸워 그 권리를 쟁취하고 누려야 하는지 배운 적은 거의 없다. 늘 의무만 강조하였다. 집, 학교, 사회 그 어느 곳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관계망이 복잡해질수록 철저하게 의무만 강조하였다.

의무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규범적 가치이다. 가치의 정당성을 통해 그 실천 주체인 내 삶과 자아가 실현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 의무의 내용은 정당하고 심지어 신성하다. 다만 그 의무에 걸맞은 권리도 대등한 방식과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의무는 당위다. 선택의 고민이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다.

의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참아야 할 사항도 많다. 인내 그 자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내에 대해 귀 따갑게 들어 왔다. '어질 인(仁)도 중요하지만 '참을 인(忍)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배웠다. '참을 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냥 참기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왜 참는가, 왜 참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다. 공자는 인내와 기다림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인내는 참는다는 자의식을 동반함으로써 고통이 따르지만 기다림은 참는다는 자의식 없이 견뎌으로써 인격을 완성시킨다. 햇빛은 나무는 겨울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꽃을 피운다. 꽃은 인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가 수양의 길을 떠나며 스승께 물었다. “몸을 수양하는 미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답하였다.

“모든 행실은 참는 것이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같이 해로할 것이요, 벗끼리 참으면 서로 명예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참으면 내게 화(禍)와 해(害)가 없을 것이다.”

그 대답에 제자가 다시 물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답하였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터로 변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요, 형제가 참지 않으면 분거(分居)할 것이요, 벗끼리 참지 않으면 정의를 멀어질 것이요, 내가 참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인내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 즉 '잠깐 분노를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

다(忍一時之忿 免百日之憂)'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함께 참으면 이롭다. 화목함은 그렇게 함께 참는 데서 성장한다. 그것은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허물없고 막역한 사이일수록 뜻밖의 긴장과 갈등에 직면하기 쉽다. 그걸 참지 않고 터뜨리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반목하게 된다. 당나라 장 공예의 집안은 자식을 낳아 한 집에서 길렀다. 9대에 이르러 식구가 수백에 달했지만 늘 화목하고 인정이 두터웠다. 당 황제 고종이 그 소문을 듣고 친히 행차해 잔치를 베풀어 주며 비법을 물자 장 공예는 붓을 들어 참을 인(忍) 자 백 개를 쓴 뒤 말하였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함은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거나 젊은이들의 예절이 잘못된 탓입니다. 저희 집안은 오직 참는 것을 집안의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이해하고 참으니까 자연히 말이 없고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인내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그 값이 엄중하다. 수신(修身)에 인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인내는 다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정도에 이르는 인내까지 강요받고 살았다.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무시되고 억압되었으며 특히 권리를 유보 당했다. 그러면서 가장 빈번히 들먹인 말이 고진감래(苦盡甘來)이다. 사실 이 말은 자칫 위험하다.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걸 무조건 전제하기 때문이다. 왜 이 고통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인지 등을 묻지 않는다. 학교에서 그런 말을 쉽게 쓰면 안 되는 건 '학교 다니는 일, 공부하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즐겁고 공부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건 안중에도 없다. 나중의 달콤한 결과는 내가 고생한 덕에 얻은 결실이니 오직 '나만' 누려야 한다는 이기심을 키울 수도 있다. 아이의 절제력을 미래의 성공과 연결 짓는 이른바 '마시멜로 이론'도 그런 식으로 해석되며 악용될 수 있음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무조건 참으라는 건 폭력이다. 거기에 순치되면 안 된다. “인내에도 어느 정도가 있다. 너무 오래 참으면 그건 비겁함이다”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 조지 잭슨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부당한 억압과 강요는 비판하고 저항하며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용기 있는 인내일 때 비로소 제 값을 한다. 뭐든 과하면 안 된다. 의무도 인내도 마찬가지다.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순치되어 인식과 감각을 함께 잃지 않아야 한다. 참는 것도 정도(程度)가 있고 그래야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다. 인내를 강요하는 사회는 거부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은 참을 걸 참고 참지 말아야 할 건 참지 않는 데서 비로소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집(金京執)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해 가르쳤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책담』, 『생각의 융합』, 『엄마 인문학』, 『인문학은 밥이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서재'에도 꽂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서평집 『책담』으로는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바람, 정치로 개혁의 틀을 다져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대표 발의 정성호 국회의원



몇 가지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사람이 있다. 정성호 의원이 그런 사람이다.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1위, 경기도 양주 지역구 최초 3선 의원, 상임위원회와 본회 출석률 99% 등. 그는 수치가 말해 주듯 '일하는 국회의원'의 표본으로 통한다. 덕분에 성과가 적잖다. 그 중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교화청 독립 등을 골자로 한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은 교정행정의 현실을 꿰뚫는 그의 냉철한 시각에, 수용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덧입혔다. 오랜 기간 교정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을 발휘해 온 정성호 의원을 만났다.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인 사이에서 정성호 의원은 '잘 듣는 사람'으로 회자된다. 어떤 안건이든 충분히 경청한 다음, 상대의 말 속에서 설득의 힌트를 얻어 마침내 합의점을 찾는다. 정성호 의원의 이 같은 방식은 오래 전 변호사 시절부터 몸에 배어 지금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1992년 변호사가 되면서 그의 일상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로 촘촘하게 채워졌다. 특히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집중해 들었다. 이후 정치인의 삶을 결심한 건 자신에게 향했던 간절한 목소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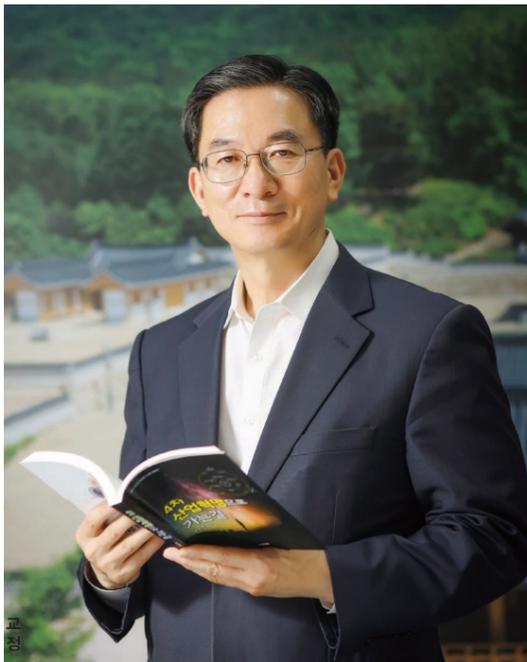
“변호사 시절 인권운동을 포함해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법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죠.”

교정에 대한 관심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주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변론하는 국선변호를 맡으면서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70%가량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데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는 2004년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과 행동으로 발전하였다.

“변호사 생활을 통해 범죄 예방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어 살펴보니 교정교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더군요. 수용자 교정교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확립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의 핵심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 및 정비하는 것이다 ”



교정에 대한 오랜 관심, ‘교정행정 선진화 3법’에 담다

20대 총선 당선으로 3선 의원이 된 정성호 의원은 법사위 소속 위원 자격으로 교정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이후 적잖은 시간과 공을 들여 교정 개혁을 준비하였고, 이를 2017년 6월 그가 대표 발의한 ‘교정행정 선진화 3법’에 집약하여 공론화시켰다.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의 핵심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한 재범 방지’라는 교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법,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정공무원 보건복지 기본법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금의 교정보부 체계에서 교정교화청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방청이나 경찰청처럼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면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다. 그는 교정행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로세우는 데 교정교화청 독립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 시선에서 바라보는 법무부는 검찰행정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국회도 다르지 않고요. 단편적인 예로, 국회에 법무부장관이 왔을 때 교정행정이나 출입국관리, 이민, 범죄예방문제 등을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지극히 드물어요.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관심은 사건사고에 집중되어 있죠. 교정교화청으로 독립하면 이런 아쉬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0월부터 시행

교정행정 선진화 3법에는 형 집행 체계 구축을 위한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포함된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수용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 집행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2.5%에 달한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을 두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따른다.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세워 교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행히 교정행정 선진화 3법 중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올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교정행정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보탠 끝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된 셈인데요. 대표 발의에서 제안했던 법무부장관이



교정공무원에게 보내는 약속의 메시지

전국 각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교정 업무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을 방지하는 중차대한 업무임에도 그동안 예산과 인력 지원,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정행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교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교정공무원 보건복지 기본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여러분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와 수형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정행정의 계획과 체계를 갖추는 것, 법원·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정행정 관련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는 특히 법원·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교정행정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절차를 협의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재범 방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교정공무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정시설과 인력 수급

교정공무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교정공무원 보건복지 기본법안’도 ‘교정행정 선진화 3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과 안전, 복지 수준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유사한 제복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정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선진 교정행정을 위해 인력과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못 박는다. “선진 교정행정이란 수용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재범률이 낮아지는 교정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정행정 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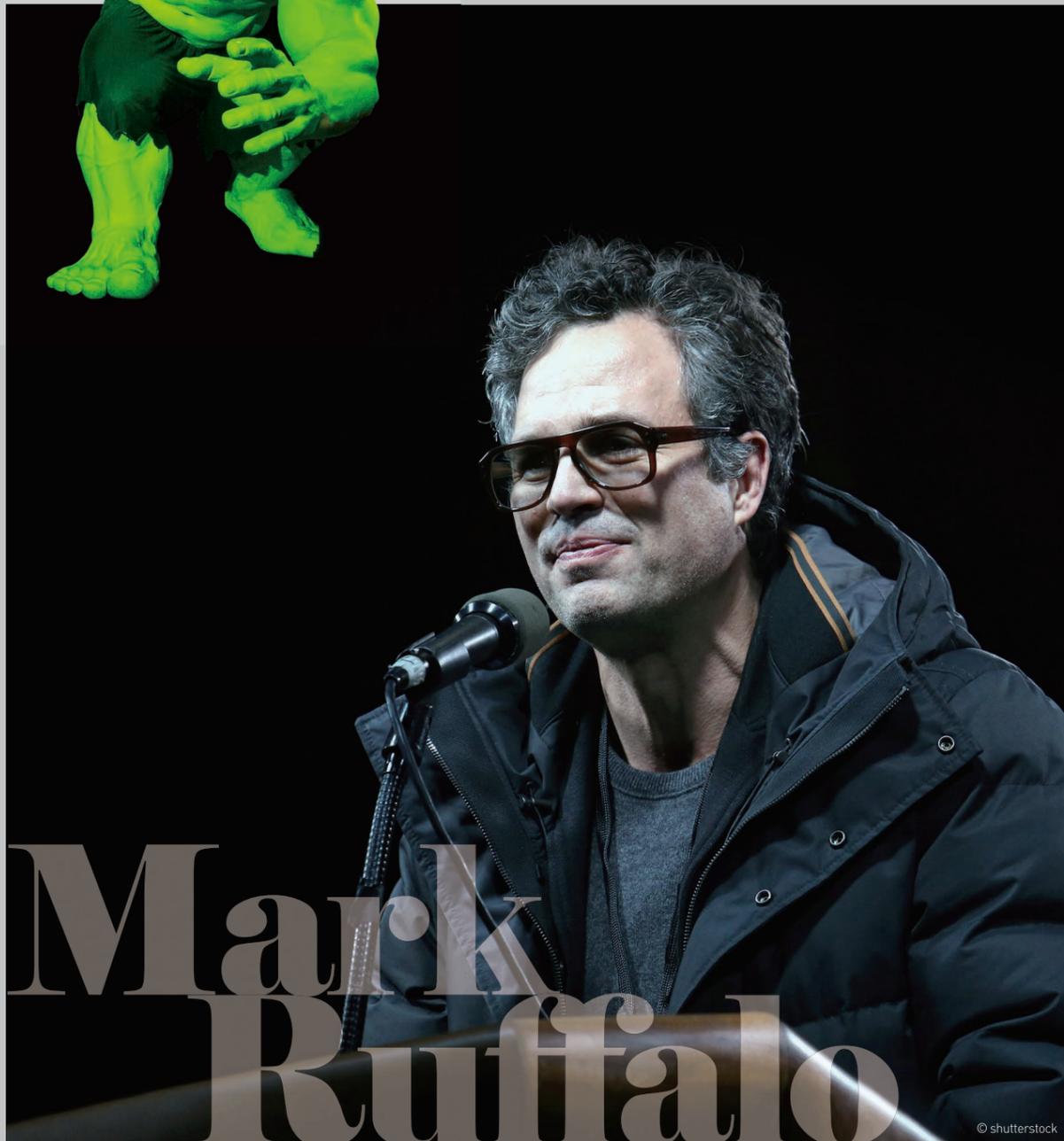
화 3법’ 중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지만 우선 인력과 환경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같은 하드웨어가 제대로 구비되어야 교정교화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정성호 의원은 여러 시안 중에서도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에 유독 마음을 쓰고 있다. 적잖은 시간 동안 교정행정을 파고들면서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애환에 누구보다 깊숙이 공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교정에 줄곧 관심을 가져온 정치인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는 것으로 그 순간을 지나 보냅니다. 이런 작은 시도로도 좀 전까지 치밀어 올랐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평정심을 찾게 되죠. 교정공무원들도 매순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만큼 어려움이 클 텐데요. 그럴 때 심호흡하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장과 기획재정부위원장 회장을 거쳐 최근 법사위로 복귀하였다. 그런 만큼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의 시행을 위해 힘을 모으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치인의 삶을 살며 시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였듯이,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그의 바람은 관련 법과 제도 속에 차차 스며들 일만 남았다.

어벤져스 헐크를 탄생시킨 800번의 도전 마크 러팔로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를 연기한 마크 러팔로는 오디션을 800번이나 본 끝에 배우로 주목받았다. 그가 도전하는 사이 10년이 흘렀고 헐기왕성한 20대는 지나갔다. 숱한 탈락을 경험하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간 그것기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크가 탄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크 러팔로를 이끈 것은 하나의 길을 향해 도전했던 인내심이다. 그의 삶은 인내심 덕분에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은 외모, 800번의 인내

특출한 개성과 뚜렷한 이목구비는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가진 특징이다. 그런 외모와 거리가 먼 마크 러팔로는 배우로 인기를 끌기 전까지 800번의 오디션을 봤다고 한다. 영화계 종사자들이 그를 보고 연기는 잘하지만 외모가 평범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배우로서 스크린에 등장하여 이름과 명성을 알리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기회가 날 때마다 오디션에 참가했으나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명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으나 작은 단역이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인 데다 눈에 띄지 않은 외모를 가진 그에게 기회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다.

무명의 설움을 참지 못해 꿈을 포기한 신인은 셀 수 없이 많다. 무엇보다 가난은 가장 큰 장벽이다. 그러나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였다. 틈틈이 바텐더 혹은 요리사,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에게 찾아온 기회는 <이것이 우리의 청춘(Thesis our youth)>이라는 희곡 작품이었다. 이 무대에서 그는 길거리 페인 역할을 맡았는데 한 비평가가 그의 연기를 극찬한 것이다. 어느 비평가는 그를 보고 할리우드 황금기를 장식한 배우 '말런 브랜도'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며 칭찬하였다. 이에 힘입어 그는 10년 동안의 긴 무명 시절을 접게 되었다. 영화계에 진출한 것은 물론 블록버스터 영화의 배역도 맡았다.

내면에 헐크를 숨긴 배너 박사 연기

앞날이 창창한 배우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내심을 실험하듯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800번 오디션에

낙방해도 다시 일어났듯 지금의 시련도 언젠가는 과거의 일이 되리라고 믿었다. 무엇보다 그에겐 시련과 역경을 견뎌야 할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가족이다. 그는 아내에게 뇌종양 판정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아내의 뱃속에 두 사람의 첫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에게 뇌종양 사실을 숨기고 혼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열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랜 시간 버티면서 그는 수술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지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눈을 떠 보니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게 닥친 안면마비와 청력 상실 후유증은 배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그의 곁에 뒤늦게 수술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있었다. 재활 치료와 안면 근육 운동은 10개월이나 이어졌다. 힘겨운 과정을 인내하고 견뎌내자 얼굴 근육이 드디어 움직였다. 뇌종양이 귀와 관련되어 있어 왼쪽 귀의 청력은 회복하지 못했으나 안면마비를 극복한 것만으로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 그렇게 2004년, 범죄 스릴러 영화 <인 더 컷>에서 형사 역할을 얻어냈다. 스크린에 복귀한 것이다.

2012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하면서 마크 러팔로는 한국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헐크를 연기한 배우는 마크 러팔로 말고도 여럿 있었다. 그렇지만 마크 러팔로만큼 외면과 내면이 다른 헐크를 잘 표현한 이는 없었다. 마크 러팔로가 새로운 헐크 역할에 내정되었던 2010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그의 외모가 화를 내는 헐크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내면에 헐크가 살고 있는 이중적인 배너 박사. 지금은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헐크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가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여 찬찬히 경력을 쌓아 왔기에 오늘날의 헐크가 탄생한 것이다. 한 평론가는 그를 가리켜 안개처럼 흐릿지만 진실한 배우라고 말한다. 인내하며 꿈을 좇은 그, 그가 걸어온 삶의 내력과 발자취는 우리에게 인내심의 가치를 일깨우게 한다.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인내심’

8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 나의 행동을 뒤돌아보면 '그때 좀 더 이해했더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하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거나 그렇지 못해 후회했던 경험이 많을 듯합니다. 이번 호 주제인 '인내심'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보았습니다.

인내심이라 하니 어느 마블 영화의 쿼키 영상이 생각나네요. 잔뜩 기대하고 엔딩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뜬금없는 인내심 강의라네요. 인내심이란 단어를 보니 저 자신이 어땠는지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해 끈기 있게 기다리기보다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려 한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항상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 아이의 훈육과 관련된 것일까요? 이제 여덟 살인 어린 딸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서툴기 마련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제대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요. 그런 뒤에 혼자 후회하고 아이에게 미안해했죠. 아이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아직 전 인내심이 부족한가봐요. 이 글을 쓰면서도 자꾸 미안함만 생기고 후회스럽지만 합니다. 좀 더 인내심이 있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도소 교위 유동진〉

저는 인내심과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팀원인 유해명 교사가 7월호 쿼츠 응모에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당첨의 '기'를 받기 위해 총무과에서 <교정>지를 받아 보자마자 얼른 응모하게 되었네요. 인내심이 기다림이라면, 결과가 기대되는 일에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네요. 얼른 다음 호를 보고 싶고, 제 사연과 쿼츠 정답의 당첨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 호 발간까지 제 인내심이 기다려줄지 모르겠네요.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김행화〉

전에 송무 업무를 담당할 때 기관과 직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진정·청원을 수시로 남발하는 수용자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그 수용자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힘들게 버티고 있구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음속 울림으로 청원을 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칠 때쯤 그에게 가족을 위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출소하라고 위로를 건넸죠. 그러자 그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다며, 앞으로는 다른 수용자와 같이 잘 어울리고 청원 등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 교도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인내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인천구치소 교감 인치현〉

아이를 키우면서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합니다. 아이들의 자제심을 테스트하고 미래 성공 가능성과 연관 짓는 마시멜로 실험이 있잖아요? 더 큰 만족을 위해서는 당장의 즐거움을 참고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안양교도소 교위 조승완〉

교정시설에 다양한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처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질환을 갖고 있는 수용자의 수많은 진료 요구를 다 받아 주기에는 현재의 인력 상황이나 제반 여건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몇 개월 전 의료 동행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와 의료과 직원 간의 마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수용자를 수용동으로 돌려보내면서 수용자가 제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바쁜 상황이었지만 수용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생각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그 수용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그때 제가 좋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만 알아차리고 공감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그것이 곧 인내심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인위적이거나 힘들이는 인내가 아닌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는 인내도 가능할 것입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도 한범〉

교도관을 교도관답게 하는 으뜸 품성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들 수 있겠지만 사명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너무 관념적이지요.	●
차라리 '인내심'이라는 말이 더 보편타당한 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내심으로 38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을 담담 안에서 견뎌왔습니다. 참 지난한 세월이었네요. 더러 자존심이 무너지고 심한 갈등과 번민을 겪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처럼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
"만일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토마스 칼라일)."	●
인내심, 제 직업을 영화롭게 하는 품성이자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품성입니다.	●

〈소망교도소 최기훈〉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correct2015@naver.com
메일 주소 yjw1219@korea.kr





소소한 일상에 피어난 행복으로 큰 추억을 공유하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마음 맞는 동료’는 직장인이 말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의 조건이다. 동료와 합이 맞을수록 근무 스트레스가 적고 협업의 성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 어쩌면 직장인이 가장 바라는 풍경일지도 모른다. 교정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교정은 행복을 믿고’는 교정공무원에게 여가를 즐기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선물한다. 무더운 여름,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찾아갔다.

행복이란 함께 돕고 나누며 느끼는 것
좁은 길을 굽이굽이 돌아 양 옆으로 나무가 우거진 산길을 따라가니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입구가 나타났다. 3면이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가파른 절벽이 뒤를 지키고 있다.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자리 잡은 이곳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함께 있어 규모는 꽤 크지만 오가는 외부인은 뜸하다.
건물 안의 풍경은 바깥과 사뭇 달랐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다. 이들은 행사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가다가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동료를 불렀다. 얼굴들마

다 표정이 밝아 들떠 있는 기분이 금세 드러난다. 대회의실에 먼저 배달된 피자와 콜라가 탁자마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직원들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미리 탁자를 배치하고 음식과 선물을 정리해 둔 것이다. 조금 늦게 배달된 치킨도 저마다 한두 박스씩 탁자로 가져갔다.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순조롭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모인 직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남성이다. 20~30대가 대부분이라 떠들썩한 대회의실에 활기가 가득하다. 이들은 서로 피자와 치킨을 나눠 먹으며 농담을 건네거나 각자의 고민을 나누었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준 권오덕 교위는 스스럼없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교정은 행복을 신고' 취재팀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멀리서 오느라 힘드셨죠? 경북북부제3교도소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나머지 직원은 오지 못했어요. 아쉬움은 남지만 이 자리에 모인 분들만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시중 대화가 오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이다. 직원들은 함께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잠깐 숨 돌리는 지금이 '행복'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전한 행복'이 되려면 다 같이 누려야 한다며 취재팀에게 음식을 권유하는 손길이 정답다.

경청특팀, 마음을 읽으면 상품을 얻는다

교정본부가 마련한 풍성한 선물 덕분에 오늘 행사는 직원들의 기대와 관심을 더욱 끌었나보다. 행사가 진행되기 며칠 전부터 시계 랜덤박스며 향수, 안마기, 스마트밴드 등 갖가지 상품이 총무과 사무실에 하나씩 도착하였다. 선물이 차례차례 배송되면서 어떤 게임을 할지 기대는 더욱 커졌다. 팀 게임에서 꼭 이기고 싶다고 말하는 이승훈 교감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평소 시계에 관심이 많은데 상품으로 시계 랜덤박스가 준비된 걸 보았습니다. 게임에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운이 따라 주었으면 하네요.”

상품 쟁탈전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모두들 출전을 기다리는 선수 같다. 준비된 세 개의 게임 중 첫 게임은 그림 그리기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팀원들이 차례차례 그린 그림을 보고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이다.

그림 실력도 중요하지만 같은 팀 동료와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느냐, 동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평소 유대감을 잘 형성해 온 직원들이라면 척하면 척이다. 경청특심, 즉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동료의 마음과 그림을 잘 읽으라, 그리하면 경품을 얻게 될 것이다. 경청특심이 곧 '경청특팀'이다.

직원들은 여섯 개의 팀으로 나누어 낱말이 적힌 종이를 뽑았다. 진행자인 윤중용 교위가 “시작”이라고 외치며 스톱워치를 누

르자 직원들은 재빨리 그림을 그려 나갔다. 20초 내로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앞선 팀원이 그린 그림에 한 획만 획 그치고 다음 타자에게 넘기기도 한다. 20초가 끝나자마자 중앙 오른쪽 탁자에 앉은 팀이 손을 번쩍 들었다. 강명호 교사가 자신 있게 “멀리뛰기” 하고 외친다. 정답이다. 강명호 교사의 팀을 포함하여 점수를 획득한 팀은 총 세 팀. 첫 게임에서 감을 잡았는지 그다음 게임은 한 팀만 제외하고 모두 정답을 맞추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타이타닉’이예요!”
아깝게 점수를 얻지 못한 팀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해 발을 구르자 회의실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소소한 게임, 큰 추억이 되다

두 번째 게임은 이름하여 '이구동성'이다. 팀원 모두가 주어진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의 답을 말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이다. 첫 번째 게임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한 팀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낼 것인가. 모두들 팀원과 머리를 맞댔다.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다.

“무조건 앞의 단어를 선택하기로 입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팀은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각 팀의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제시어를 외쳤다. 게임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직원들은 이 상황 역시 유쾌하다는 듯이 웃어넘겼다. 룰 속에 숨은 허점을 용케 잡아낸 이들의 재치가 더욱 두드러진 덕분이다.
다행히 세 번째 게임 '일심동체'는 달랐다. 낱말을 듣고 3초 안



에 팀 전원이 똑같은 몸짓을 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게임을 하는 팀원들은 서로의 몸짓을 베끼지 않도록 눈을 꼭 감아야 한다. 다섯 번째 팀의 순서, 다들 팔을 어깨 위로 휘저으며 수영하는데 한 사람만 혼자 턱을 쓰다듬고 있다. '수영'을 '수염'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관중들이 폭소를 터트리자 팀원들은 감았던 눈을 뜨고 옆 사람을 바라보았다. 턱을 만지는 팀원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아쉬운 탄식을 내뿜었다. 팀당 세 개의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아쉽게도 세 문제 모두 맞춘 팀은 없다.

게임 결과는 총 7점을 획득한 팀이 1등, 5점을 획득한 두 팀이 공동 2등이었다. 2등을 가리는 마지막 게임은 가위바위보이다. 두 팀이 번갈아 가며 이기다가 김금도 교도의 순서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김금도 교도가 연속으로 이기는가 싶더니 마침내 상대팀의 마지막 주자까지 탈락시켰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금도 교도는 팀원의 영웅이 되었다.

1, 2등 팀은 신이 난 듯 상품을 든 손을 흔들었다. 1등 팀원이자 이 자리의 유일한 여성인 김지은 식품위생서기는 모든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교정본부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김지은 식품위생서기에 이어 강명호 교사도 말을 건넸다. “지역 특성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

만큼 함께 일하는 동료와 헤어짐도 빈번하죠. 한번 근무지를 옮기면 다시 같은 곳에서 만나기 어려워요. 함께 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 많은 식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3년 동안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으며 녀석을 피운다.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웃고 즐겼던 시간. 어쩌면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피어나는 즐거움 같은 것 말이다. 맛있는 간식을 먹고 간단한 게임을 하며 한바탕 행복을 만끽한 오늘, 마음 맞는 사람들의 단결력은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이끌어 가는 힘임을 확인하였다. 동료와 함께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는 이들이 우리나라 교정행정을 든든히 떠받치는 토대가 되리라.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수륙양용차 타고 우리 가족의 첫 추억을 새기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손형준 가족

에버랜드는 많은 이들이 데이트나 나들이를 위해 한번쯤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테마파크이다. 의정부교도소 손형준 교위는 결혼하기 전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했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그는 에버랜드가 연인들의 낭만 가득한 장소이자 아이를 위한 동심세계라 말한다. 에버랜드에서 데이트를 즐겼던 두 사람은 어느덧 10년 차 부부가 되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까지 셋이서 즐기는 에버랜드는 어떨까.

딸의 생일에 받은 전화, 5년 만의 방문
“아내와 연애할 때 가끔 에버랜드에 왔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5년 만에 방문하게 되었네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엄두도 나지 않아요.”
7월 초순, 평일에 방문한 에버랜드는 비교적 한산하였다. 의정부교도소 손형준 교위는 잔뜩 기대를 머금은 표정이다. 그의 아내 한희란 씨도 5년 전이 생생히 떠오르는 듯 상기된 얼굴이다. 8살인 부부의 딸 주혜는 엄마아빠의 팔을 끌어당기며 얼른 가자고 보챘다.
손형준 교위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벤트를 해 주고 싶어 ‘영화 같은 하루’를 신청하였다. 6월에 맞이한 결혼 10주년이 계기였다. 월간 <교정> 애독자라 매호 책을 챙겨 보는데, 이 코너라면 좀 더 색다른 나들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꼼꼼히 신청칸을 채워 엽서를 보냈는데 며칠 뒤에 이 코너를 함께 진행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연락받은 날은 주혜의 생일이었다. 이 소식은 주혜에게 근사한 선물이 되었다.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 커플 우비를 맞춰 입어야 하나 고

민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죠. 팔불출처럼 여기저기 연락해서 자랑하고 싶더라니까요.”
손형준 교위는 이 코너 참여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며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한다. 부러워하는 동료들 보며 어께가 절로 으쓱었다. 날씨가 다가올수록 기대는 더욱 커졌다. 오전 일찍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왔다. 전문 작가의 카메라 앞에 서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한희란 씨는 남편의 적극성을 칭찬하였다.
“남편이 다 준비해 준 덕분이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시간 내기 정말 힘들잖아요. 아이를 핑계로 왔지만 사실 우리 부부가 더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경계심을 날려 보내는 스릴 만점 놀이기구
에버랜드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놀이기구 아닐까. 부부의 첫 번째 선택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탑승할 수 있는 ‘레이싱코스터’였다. 어린이용 ‘비룡열차’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높은 롤러코스터이다. 손형준 교위는 주혜가 워낙 겁이 없어 걱정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낮은 높이의 레일을 달린다고 해서 시한 것은 아니었다. 속도나 스릴은 다른 롤러코스터 못지않았다. 부부는 “은근히 무섭다”며 엄살을 부렸다. 반면 주혜는 놀이의 즐거움 덕분인지 낯선 이를 만나 굳어 있던 표정이 풀렸다. 그다음 놀이기구는 ‘플라잉레스큐’였다. 하나의 배를 타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방식이다.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싫을 법도 하련만 주혜는 신나는 마음을 점점 더 과감하게 표현하였다. 언제 경계를 했나 싶게 즐거움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주혜가 엄마와 단둘이 2인승 놀이기구를 즐기는 동안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였다. 사실 며칠 동안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이벤트를 앞두고 손형준 교위의 걱정거리였다. 그는 긍정적인 말로 애써 걱정을 감추었다. “지나가는 비밀 거예요. 여기만 먹구름이 있지 저쪽은 아직 밝잖아요. 더위도 잠시 식히고 좋네요.”

얼굴 앞으로 다가온 기린과 찰삭 사진을

이들이 비 소식에 이토록 신경 쓴 이유는 ‘로스트밸리 스페셜 투어’ 때문이다. 6인승 수륙양용차를 타고 초식동물에 가까이 다가가기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버스를 타고 가며, 동물을 지켜보기만 하는 일반 로스트밸리 투어나 사파리 투어보다 재미

가 크지만, 비가 오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스페셜 투어를 예약할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기에 가족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다. 가족은 부스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스페셜 투어 장소로 향하였다. “비가 와서 걱정 많이 하셨죠? 비가 약간 내리는 게 오히려 초식동물에게 좋아요. 동물들이 평소보다 더 활발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사육사가 수륙양용차의 시동을 걸고 흥겹게 “출발”을 외쳤다. 로스트밸리 초입, 쌍봉낙타가 가족들을 반기며 가까이 다가왔다. 가족들은 사육사의 안내에 따라 쌍봉낙타에게 먹이를 건넸다. 주혜가 잔뜩 긴장했는지 집계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주혜가 마침내 ‘첫 먹이 주기’에 성공하자 손형준 교위는 “와, 엄청 신기하다”며 소리쳤다. 스페셜 투어가 특별한 점은 최대 6인이 탈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수륙양용차답게 로스트밸리에 조성된 강 속으로 들어간다. 지붕을 열 수 있어 자리에 일어나 구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가 그친 후 가족들은 지붕을 열고 스페셜 투어의 진면목을 느꼈다. 손형준 교위는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던져 주었다. “나이스 샷! 지붕을 탁 여는 순간, 이게 바로 스페셜이구나 싶었어요. 일반 투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재미예요.” 다시 육지로 올라와 두 마리의 기린을 만났다. 그중 한 마리는

로스트밸리 내 기린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다. 기린은 수륙양용차 안으로 고개를 숙였다. 기린의 얼굴은 적어도 사람 상체의 두 배는 되는 듯하였다. 뜻밖의 공격(?)에 가족들은 집계를 놓쳐 버렸다. 거대한 기린 두 마리가 가족을 에워싸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가족의 당황한 모습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태국 요리 먹으며 푸켓 여행을 회상해

투어를 마치자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반응이었다. 손형준 교위가 다른 건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하였다. 한희란 씨와 주혜도 마찬가지였다. “스페셜 투어만큼 재미있는 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기린 두 마리가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 요리 식당에 들어서 가족들은 기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요리가 나오자 ‘기린 삼매경’을 멈추고 바빠 젓가락질하였다. 태국 요리는 부부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다. 연애할 때 푸켓으로 여행을 가서 뚝양꿍을 먹었다. 주혜는 작년에 처음 태국 요리를 먹어 봤는데, 입에 맞는지 부부보다 더 잘 먹었다. 종종 외식으로 먹었던 태국 요리보다 종류가 다양해 젓가락만큼 눈길도 바꿨다. “태국 요리는 정말 저희의 취향을 저격했네요. 오늘이 일상의

섬표 같아요.” 이들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옛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애 때 했던 데이트, 둘만의 비밀이었던 여행, 딸 주혜와 처음으로 에버랜드에 왔던 경험... 손형준 교위는 이번 로스트밸리 스페셜 투어가 세 명 모두 함께 처음 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하였다. 첫 경험은 언제나 강렬하고 오랜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니, 오늘 하루 또한 잔영처럼 오랫동안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월간 (교정)이 여러분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분은 독자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평소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고, 가고 싶은 장소에 방문하는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칭찬보다 더 어려운 제대로 사과하는 법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때로 잘못도 저지른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로잡기란 어렵다.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참회는 더 큰 참화를 막아 준다. 올바른 사과는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한다. 틀어질 뻔했던 인간관계를 복구할 수도 있다. 단, 제대로 사과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칭찬보다 더 어려운 '사과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나의 변명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해야

아무리 무던 사람이더라도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알아채곤 합니다. 사과할 때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미안한 척, 고마운 척 대한다면 금세 들통이 날 뿐만 아니라 때로 더 큰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핑계는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합리화라도 다릅니다. 대개 사과를 할 때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왜 그랬냐면”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와 애초의 생각을 계속 강조하기 쉽지요.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나 상처를 입은 상대방은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나 때문에 상대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분일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할지 상상해 봅시다. 사과를 해야 할 때 '역지사지'의 가치는 가장 빛을 발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기

사과는 다만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오롯이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밝히고, 차후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끝나야 합니다. 복잡다단하고 지난한 과정이지요. 사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용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후회와 부끄러움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행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수반할 때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내가 다 잘못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무슨 잘못을 했으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진심이 담겼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상처를 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만큼 노력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해결책,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대가 받은 상처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같은 실수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약속을 제시합니다.

사과에도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나와 상대 모두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곧장 사과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나 또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진심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억울한 마음과 자기정당화가 앞설 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화를 내거나 비난을 계속할 지도 모릅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열린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여 대화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라면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지극히 사적인 소통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상황과 맥락을 찬찬히 짚어 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건네는 사과는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과의 역풍, 또는 사과의 역설

나의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다행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응답은 오롯이 상대방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과가 불충분하다면 더 많은 노력과 협상, 보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불충분한 사과는 새로운 빌미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사과해야 하는, 사과의 역풍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와의 관계가 나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상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하는 이유는 결국 관계의 유지와 회복입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수치심을 극복하고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 받는 사람 모두의 품격을 높입니다. 올바른 사과만이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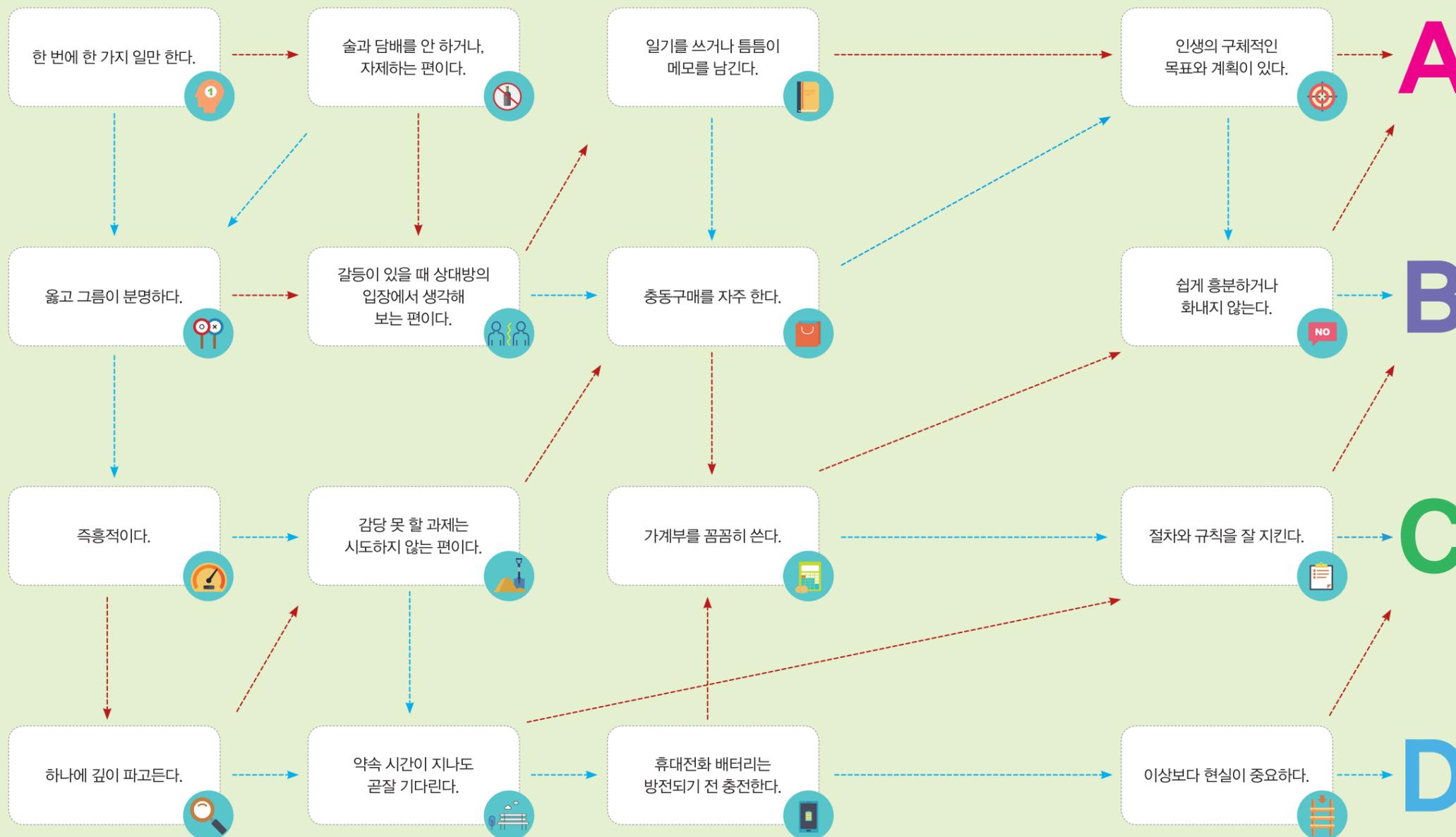
당신은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가요?

→ YES
→ NO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수많은 유혹을 견뎌야 한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거나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목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발휘한다.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을 빈틈을 주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가는 단단한 길. 그것은 인내심이 만들어내는 성취의 길이다.

참고서적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데이비드 디살보, 모멘텀),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켈리 맥고니걸, 알키), <나는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하우석, 다온북스)

START



인내심 100%, 빈틈없는 마음의 소유자
한 번 결심한 일은 곳곳하게 이뤄내는 강한 인내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판단 과정부터 신중히 하는 만큼 결심을 반복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적죠. 당신은 성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은 노력이 뒤따른다고 해서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간다면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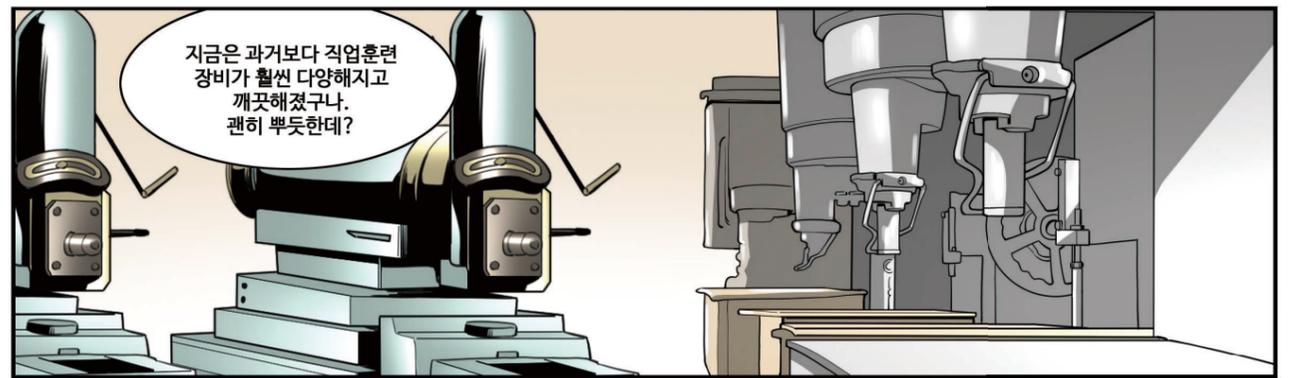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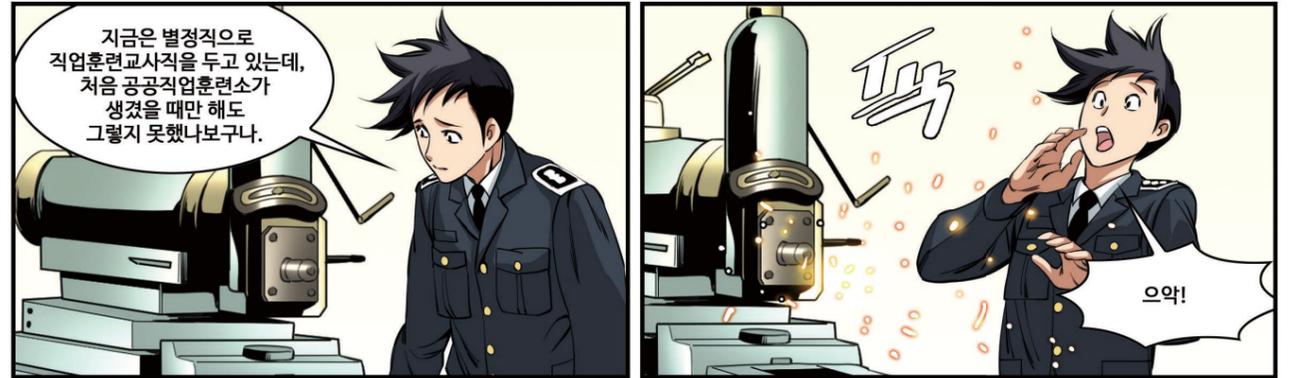
70%의 인내심으로 견디는 30%의 유혹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문제가 없지만, 주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결심이 흐려지지 않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물론 목표를 검토하고 수정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표 중간에 침입한 유혹이 최종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궤도를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40%의 인내심을 방해하는 60%의 갈등
포부는 크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나요? 머리로 아무리 굳게 다짐해도,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심은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인내심을 기르려면 실천사항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마련한 뒤 하나씩 실천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나간다면 목표로 했던 100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내심 20%, 목표 방해꾼 발견이 먼저
먼저 세운 결심보다 즉흥적인 행동이 앞서는 당신, 내일보다 현재를 즐기고 중요시하는 옴로(YOLO) 타입이군요.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는 건 좋지만, 언젠가 인생의 큰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했다면 우선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방해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공공직업훈련소를 살펴보다

중 단 없는 전 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

그리스 산토리니

+사진 찍을 때 유용한 영어 표현



Santorini

●

위치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
인구 13,670명
면적 73 km²
비행시간 최소 16시간 소요
한국과의 시차 -7시간

소개 뜨거운 햇살에 빛나는 하얀 골목길, 지중해를 닮은 파란 지붕과 창틀, 담장마다 흐드러진 붉은 꽃들. 산토리니는 동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다. 그리스 본토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지만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갈 만큼 인기 있다. 아테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40분, 아테네 페레아스 항구에서 산토리니 행 고속 페리를 타면 4시간이 소요된다. 산토리니의 명물은 아기자기한 골목길뿐만 아니다. 산토리니는 오래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석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둥근 모양의 화산 군도이다. 화산 폭발 당시 섬 중앙부가 침몰되면서 생긴 절벽과 해변은 그 자체로도 절경이다. 분화구 주변을 일주하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페리사 비치, 카마리 비치에서 일광욕을 즐겨도 좋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이아 마을로 돌아와야 한다. 지중해와 함께 붉게 물들어 가는 이아 마을의 석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노을로 꼽히니까

Santorini



피라 마을

석호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절벽 마을'로도 불린다.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산토리니의 중심 변화가이다. 무엇보다 흰 건물과 푸른 바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이 함께 어우러져 장관이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많은 이아 마을과 달리 가볍게 끼니를 때울 저렴한 음식점도 많다.



네아 카메니(Nea Kameni)

산토리니 중심부의 화산섬 네아 카메니는 16세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다. 430년 동안 약 6번 폭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섬의 모양이 변하였다. 정상에 오르면 아직도 연기가 나면서 유황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사람은 거주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줄을 잇는다.



이메로 비글리

피라 마을에서 이아 마을로 가는 길에 있어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다. 석호를 둘러싼 절벽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해발 300m 높이에 지어진 호텔들은 신혼여행 코스로 인기가 높다. 화보처럼 아름다운 지중해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피르고스 마을

피르고스 마을은 산토리니의 옛 수도이다. 13세기에 지어진 베네치아 성채가 마을 꼭대기에 남아 있다. 성채에서 풍경을 내려다보면 산토리니 포도밭 가득한 푸릇푸릇한 마을의 전경이 보인다. 바람이 거센 탓에 포도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성채에서 볼 수 있는 이 풍경은 피르고스 마을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다.



이아 마을

피라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이아 마을이 나온다. 석양이 지는 풍경으로 유명한 세계 3대 선셋 도시 중 하나다. CF와 그림엽서에서 보던 하얀 골목, 파란 교회당의 마을이 바로 이곳 이아 마을이다. 그중에서도 굴라스 성채는 산토리니의 노을 명소이다. 이곳에 영국인들이 세운 아틀란티스 서점은 세계 최고의 서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붉은 해변(Red Beach)

산토리니 남단 아크로티리 유적 인근에 있는 모래사장이다. 검붉은 토양이 층층이 쌓인 화산암 절벽과 검은 모래사장이 장관을 이룬다. 지중해 바다 밑이 흰히 보일 만큼 물이 맑아 수영하기에 좋다. 레드 해변에서 배를 타면 남서쪽에 위치한 다른 해변으로도 갈 수 있다.

영어회화 표현

사진 찍을 때 유용한 영어 표현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I'd like a photo with the church in the background.
저 교회가 배경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May I ask you to take one more?
한 장 더 찍어 주시겠어요?

Please take a picture vertically/horizontally.
세로로/가로로 찍어 주세요.

Just in case. One more shot.
혹시 모르니 한 장 더 찍을게요.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too!
저도 찍어 드릴게요!

Just press this button, please.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Move to the right a bit, please.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세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같이 사진 찍어도 되나요?

You're not allowed to take photos here.
여기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Don't turn on the flash.
(박물관이나 유적 등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지 마세요.

Do not use selfie sticks.
셀카봉을 사용하지 마세요.



명언(땡언) & 나에게 관심을 줘(어그로) 신조어 '땡언'과 '어그로' 알아보기



땡언



'명언'의 초성과 중성 모양을 교묘하게 바꾸어 착시 현상을 유도한 신조어이다. '땡곡' '땡작' 등의 유사 표현이 있다. 모양이 비슷한 외래어로 바꾸거나 아래위를 뒤집기도 한다. '폭풍눈물'의 상하좌우를 뒤집어서 '롬곡웁늪'으로 만드는 식이다. 이 표기법은 인터넷 커뮤니티 '야구 갤러리'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야민정음(야구 갤러리+훈민정음)'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어휘를 독특하게 재구성하는 온라인 특유의 문화 코드로 해석하는 평론가들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문법 파괴를 우려하기도 한다.



오늘날 온라인 신조어는 단순한 줄임말 수준을 넘어선다. 자음과 모음을 해체하고, 한국어와 외래어를 합성해 전혀 새로운 표기법을 개발한다. 일본을 '티본(日本)'이라 쓰고 '귀엽다'를 '커엽다'로, '대장'은 '머장'으로 쓴다. '야민정음'에 따르면 '식혜'는 '식혜'라고 표기해야 맞다. 시각적 형태에 착안하여 한글의 제자 원리를 뒤집고 재구성한다. 학교와 언론이 '국어 파괴'를 아무리 한탄해도 온라인 세계 안에서 대중의 언어유희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시장이다.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마케팅 전략에 이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문 브랜드를 한글 초성으로 바꾸어 부르고, 특정 상품명 자체를 '야민정음'의 제자 원리로 출시한다. 올해 초 한 식품회사가 한정판으로 선보인 'ㅇㅇ네빔면(비빔면)'은 23시간 만에 동이 났다. 말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두루 쓰이고 사회적 합의를 얻으면 말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그렇지 못하면 '트렌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세종대왕은, 아니 '세종대왕'은 땅 밑에서 진노하실지언정 이 시대의 신조어는 끝없이 변화와 전복을 거듭할 것이다.

어그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올리거나 시비를 걸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뜻한다. 흔히 '어그로를 끌다'라는 관용어구로 쓰이며 어그로를 끄는 사람은 '어그로꾼'이라고 불린다. 공격적, 적극적이라는 뜻의 영단어 어그레시브(aggressive)가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일부러 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실드'나 '순삭'처럼 온라인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생활 세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된 게임 용어들 가운데 하나이다.



'어그로'는 다중 접속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 보았을 단어다. 어그로를 끄는 사람은 해당 팀에 피해를 입히고 최악의 경우 팀을 전멸하게 만든다. 일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온라인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써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는 커뮤니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이나 사진을 계속 올린다.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다. 토론의 장에서 누군가의 악의적인 글과 행위는 논의의 맥락을 끊는다. 인간 본연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커뮤니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그 팀원을 냉정하게 내치지는 못한다. 같은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 세계에서 만나는 '어그로꾼' 역시 그런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중요성과 자신의 역할을 새삼 환기하고 자신이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인간은 무리와 떨어져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한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 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8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면,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르웨이, 재범 막는 할덴 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의 멘토·롤모델

노르웨이는 교도소의 개념을 수용자를 징벌하는 곳이 아니라 재활시키는 곳으로 바뀌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었다. 노르웨이의 할덴 교도소는 거실과 기도실,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실을 마련하였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도관도 규정을 위반하는 수용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멘토나 롤모델로 역할한다. 이 때문에 스쿠터를 탄 교도관 옆에 수용자 두 명이 나란히 조깅하는 모습이 흔하다. 교도관과 수용자가 함께 식사하고 배구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요가를 배우기도 한다. 노르웨이가 교도관 교육에 2~3년을 투자한 결과다. 교육 기간이 12주인 영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이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 출소자의 재범률은 약 20%로, 약 50%인 영국에 비해 절반 이상 낮다. 오래 홀다이 할덴 교도소장은 “수용자는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기도 하다”며 교도소 운영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콜롬비아, 교도소 레스토랑 각광 수용자가 요리부터 서빙까지 전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 위치한 산디에고 여성교도소가 연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살인범, 마약 밀매꾼, 테러범들이 교도소 내의 '인테르노' 레스토랑에서 주문과 요리, 서빙을 도맡았기 때문이다. 한때 교도소 쓰레기장이었던 이곳은 2년 전 고급 레스토랑으로 탈바꿈되어 기업가와 예술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하였다. 이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수용자는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며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의 여성수용자가 이곳에서 일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 특히 수용자들은 인테르노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사, 종업원 직종의 일을 터득하고 존엄성을 되찾으며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극복하였다. 이곳에서 일하는 수용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이사벨 볼라노는 “레스토랑이 열린 후로 교도소 안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싸움도 줄어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라크, 콩나물 시루 같은 교정시설 비인간적 환경에 인권 논란

이라크의 탈카이프 교도소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어 수용자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수용자들이 탈카이프 교도소 바닥에 웅크린 상태로 누워 잠자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였다. HRW는 익명의 고위 이라크 교도소 전문가를 통해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을 보면 수용자들은 서로의 몸에 팔과 다리, 머리를 얹고 있는 데다 일부는 눕지도 못한다.

탈카이프 교도소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설은 수용 능력이 약 2,400명이지만 현재 약 5,400명을 수용 중이다. 이러한 과밀 수용은 최근 이슬람국가(IS)와 전투 과정에서 수용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탈카이프 교도소는 식량은 물론 담요, 매트리스, 의류 등 생활필수품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RW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을 지적하며 수용 환경 개선을 강조하였다.



중국, 교통사고를 낸 수용자? 12년 만에 드러난 탈옥 미스터리

중국은 내몽골 시라호터시의 교도소에 있던 수용자가 땅굴을 파 자유롭게 교도소 인팍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수용자는 2003년 강도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은 시 씨다. 그는 수용 당시 동료 수용자에게 땅굴을 파도록 지시하였다. 땅굴이 완성된 후에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교도소를 출입하였다. 수용생활을 하던 2005년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유흥업소에서 사람을 때려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문제는 교도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범죄를 묵인하였다. 심지어 시 씨의 수형 태도가 좋다면 감형을 건의하였다. 그래서 시 씨는 2007년 가석방되었다. 이 사실은 12년간 묻혀 있다가 중국 공산당 중앙규율위원회가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시 씨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수상히 여긴 당국이 수사를 벌여 사진의 전모를 밝혀냈다. 결국 시 씨는 재수감되었고 해당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 16명은 공산당 출당 등 처벌을 받았다.



우리가 오해한 교정시설, 교정시설에서 애쓰는 것들

CJ ENM 오픈 작가
서울동부구치소 참관

지난 7월 4일, CJ ENM 오픈의 드라마·영화 작가 30명이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하였다. 이들은 접견실부터 중앙 통제실, 상담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구치소 곳곳을 둘러봤다. 교정공무원들이 작가들과 함께 움직이며 구치소 시설을 둘러보고 이곳에서 수용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정에 관한 철학까지 낱알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 쾌적한 수용시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다. 1977년에 문을 연 성동구치소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개칭한 곳이다. 이곳엔 높은 벽이나 철조망이 없다. 대신 사각지대 없는 감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교도관의 지문이 없이는 계단은커녕 엘리베이터나 출입문 하나도 통과할 수 없는 빈틈없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있다.

“구치소를 둘러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호송 중에도 도주가 불가능하고,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들여오는 것도 어렵고, 내부에서 도주하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쓰고 있는 드라마 각본, 많이 고쳐야겠는데요?”

구치소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을 살펴보고 곳곳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하던 작가들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빈틈없는 보안체계에 꽤 놀랐다.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즉,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다.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징역 등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도소와는 다르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수의를 입고 있긴 하지만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CJ ENM 오픈 작가들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에 대해 교정공무원에게 꼼꼼히 설명을 들으며 구치소 시설을 계속 둘러봤다.

작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참관 장소는 수용거실이었다. 맞은편 벽에 반사된 햇빛이 간접조명처럼 이 작은 방을 비춘다. 무거운 문을 닫겨 내부로 들어가니 수용자의 옷가지와 물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깨끗한 장관 위엔 먼지도,

쓰레기도 없다. 화장실은 낮은 벽으로 분리되어 외부 시선이 비교적 차단되어 있다.

“이 방에는 평균 5~6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독거실도 볼 수 있어요.

서울동부구치소는 시설이 좋아 구치소 계의 ‘호텔’이라 불리기도 한다. 딱 단힌 철문과 쇠창살만 아니라면 작은 평수의 복도식 아파트라고 해도 될 정도다. 작가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앉아 보고 누워 본다. 독거실 안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던 작가 하나가 워낙 좋은 시설에 감탄하다가 문득 교정공무원에게 물었다.

“시설이 진짜 좋네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용자의 인권 보호, 신랄한 국민을 위한 일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이 있는 송파구 법조타운 내 자리하고 있다. 주위에 세련된 현대식 건물이 가득하고, 큰 상업 지구도 끼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라는 간판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곳이 구치소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의 외관이다. 외관에 못지않은 현대식 내부 시설에 작가들이 의문을 가졌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이렇게 좋아도 되냐고.

“사실 그 질문은 수십 년째 받고 있어요. 2017년에 우리 구치소가 문을 열고 시설 좋다는 얘기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흥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이 수용자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까지 이들을 악하게 대한다면 나중에 더 큰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서울동부구치소의 교정공무원들은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수용자를 만났다. 죄를 짓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젖값을 치르는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의 인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기본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정공무원들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더 나쁜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었지만 젖값을 치르고, 제대로 반성하면 사회에서 잘 수용해 줄 거라는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수용자들을 대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권을 지켜 주려고 애씁니다.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작가들이 그리게 될 '현실적인' 교정시설

다시 대회의실로 모인 작가들은 계속 질문을 이어 갔다.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는지, 우편물은 어떻게 주고받고, 교정시설 안에서 온라인 활동 등이 가능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수용자들끼리 폭행 사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물었다. 현재 집필 중인 작품을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자 질문하기도 했고, 교정시설의 환경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두기 위

한 질문도 하였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죄를 지은 사람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 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일, 교도관님들은 힘들지 않으세요?”

교정공무원들 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의 대부분은 범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수용자들을 대하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직업 정신으로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그들의 날카로운 마음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들게 되니까. 무슨 일이든 오래 하면서 내공이 쌓이면 괜찮아요. 이 일도 그렇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은 교정시설의 환경이나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작가가 교정공무원들에게 말을 건넸다.

“사실 교정시설은 ‘범죄의 재학습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용자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꾸미는 곳이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울동부구치소를 둘러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정시설은 범죄의 회전문이 아니라서. 진정한 교정의 장이라는 것어요. 교정공무원 분들이 진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서울동부구치소의 교정공무원들은 작가들의 참관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교정공무원으로 살아온 첫 순간부터 그랬듯이 어김없이, 철저하게.

교정공무원 mini 인터뷰

교정시설에 대한 말말말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병곤

수용자가 있는 곳이 너무 열악하면 마음 순화가 잘 안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렇게 인간답게 살다 보면 교정교화가 잘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정시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져도 되지 않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재판 잘 받고, 집에 잘 돌아가서 순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정진우

이렇게 외부에서 체험을 많이 오면 좋지요. 우리 구치소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사실 미디어에 노출된 구치소나 교도소는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수용자와 교도관이 거래를 하고, 시설의 보안을 쉽게 뚫는 모습을 TV에서 보면 억울해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시설을 외부에 잘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지요. 구치소가 더 이상 낙후되고 음침하며 사람들이 거부하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mini 인터뷰



작가 김주우

구치소, 평소에는 절대 올 수 없는 곳인데 이번 기회에 내부 사정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장소 중의 하나가 이곳이거든요. 생각보다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현대적이고, 쾌적하고, 사실 구치소에 대해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 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어요. 수용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배우는 곳, 강력한 수용자와 무기력한 교도관. 하지만 교정공무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하는지, 시설의 보안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교정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도 써 보고 싶네요.



작가 이정주

제가 예전에 창작한 작품 중에 구치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치소를 둘러보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지저분한 시설과 싸움, 탈출이 있는 스토리를 썼거든요. 빈틈없는 감시와 체계적인 수용자 관리, 오늘 체험이 아니었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구치소에 있는 인물이나 상황을 창조할 때 이번 참관 경험을 많이 떠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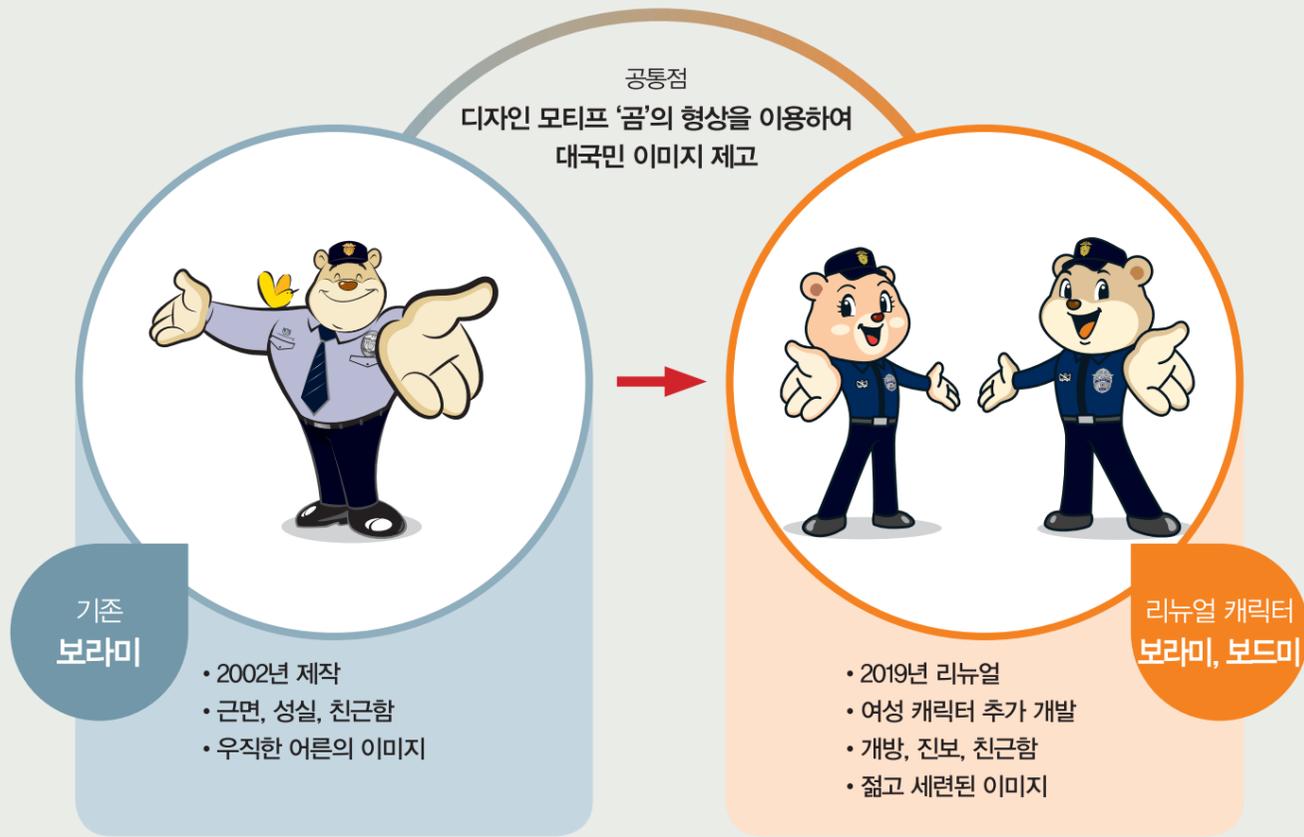


작가 이은희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이 정말 좋아요. 종영한 드라마인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보면서 '내부 시설을 너무 미화해서 방송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 보니 현장 자체는 미화된 것 같지 않아요. 독거실 안까지 가 보니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교화나 교정에 초점을 둔 좋은 이야기도 써 보고 싶어요. 철저한 직업정신으로 수용자의 사회성을 살리는 교정공무원들의 이야기. 교정시설의 교정활동에 관한 이야기를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캐릭터 교정본부 '보라미' '보드미'

교정본부가 '보라미' 캐릭터를 17년 만에 리뉴얼하였다. 현대적 감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주요 교정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리뉴얼 과정에서 여성 캐릭터 '보드미'도 추가로 개발하였다. 17년 만에 바뀐 캐릭터는 어떤 모습일까? 보라미와 보드미의 이모저모를 안내한다.



초롱초롱한 큰 눈과 활짝 웃는 입 :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교정본부
밝은 얼굴 : 재범 방지를 통한 더 나은 미래
하트 모양의 코 : 수용자를 보듬어 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교정공무원의 따뜻한 마음
큰 귀 : 국민과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교정본부의 역할과 책임
두 팔 벌린 큰 손 :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에 앞장서는 교정본부의 의지

성장하는 교정행정의 이미지를 담아

교정행정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해 왔다. 교정본부는 발전하는 교정행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보라미 캐릭터를 리뉴얼하고 여성 캐릭터를 추가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개발된 기존의 보라미 캐릭터는 현대 감각과 동떨어지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국민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밝고 친근한 교정행정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했다.

교정공무원이 캐릭터 개발에 힘 보태

캐릭터 리뉴얼 작업은 2019년 5월에 시작되었다. 요즘은 새로운 캐릭터 개발보다 캐릭터의 리뉴얼이 추세라 기존 캐릭터의 모티프인 '곰'의 기본형상을 그대로 채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곰 캐릭터의 유지는 교정본부가 그동안 쌓아온 대국민 이미지를 이어 나가는 장점이 있었다. 교정본부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표현하는 구심력 있는 캐릭터, 품격을 갖추면서도 간결한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캐릭터 시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교정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새로 개발한 여성 캐릭터의 이름은 내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여 교정공무원이 캐릭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양한 응용형으로 생동감 불어 넣어

리뉴얼된 캐릭터는 교정교화를 통해 희망을 건네는 교정본부의 미래 지향적 스토리를 담고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의 캐릭터는 국민과 교정행정을 더욱 가깝게 만든다. 국민들이 캐릭터를 자주 접해야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법. 기본형과 함께 캐릭터 응용형 17종을 개발한 이유이다. 응용형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교육·교화·상담·직업훈련 등을 나타내는 동작을 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와 화합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소통하는 모습도 표현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캐릭터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을 담은 캐릭터, 교정행정을 홍보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교정본부의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는 교정본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여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용이해진 캐릭터를 국민과 소통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면 교정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기념식·행사, 영상·미디어, 모바일·SNS 등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캐릭터 활용 아이디어와 사례 등을 조직 구성원 간 공유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국민과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만드는 일, 국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캐릭터가 함께한다.

어느 교도관의 기도

주여, 새싹이 봄비를 두려워 아니하듯
내 마음에 푸른 꿈을 가꾸게 하소서
풀꽃들이 햇살을 두려워 아니하듯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지키게 하소서

마른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여린 가지에 새 잎사귀 돋아 질푸르듯
그 믿음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하소서

지금 내가 선 이곳이
가시덤불 우거진 마른 골짜기라도
아침이면 풀숲에 내린 이슬 한 방울로
새 생명을 일깨우듯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이 보듬게 하시고
갈한 영혼 마중물 되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물로 넉넉히 나누게 하소서

하여, 진하지 않은 향기 가득 머금고
느지막이 홀로 피는 이름 없는 풀꽃들이
더 아름답다 더 향기롭다
노래하게 하소서

나의 웃음

슬퍼하지 마라
슬픔 위에 빛나는 것

미워하지 마라
미움 뒤에 외로운 것

고개 숙이지 마라
부끄러움 아래 샘솟는 것

감추려고도 하지 마라
보석처럼 드러나는 것

버릴 것 버려야지만
꼭 남겨야 하는 것

웃음은, 내 안에
하나님 얼굴이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 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라고 합니다. 저의 죄는 살인입니다. 사건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 중에 어떤 말을 적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저의 진심이 전해질지,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최선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앞으로도 살인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 뿐이었습니다. 감히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다니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과 양심이 있다면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죽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마주해야 하는 죄의 무게 앞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저 죽어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고, 살아도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죽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저의 비관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말로는 죽을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양심과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고통스러워서 도망치는 것뿐이었고 구차한 변명으로 편해지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지막 책임조차 지지 않고 도망치는 매우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속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서 속죄하기로 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

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사죄도 드릴 각오가 있는데 유가족의 상실감은 어찌 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어느새 깊은 죄책감과 죄의 무거움을 가져와 다시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불러옵니다. 조금이라도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속죄하면 좋을까요?

죄송스러움을 느끼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성실하게 수용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속죄가 될까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죄송스러워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유가족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움 그 이상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심란해지고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고인의 부검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볼 때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거나 후회와 미련이 생길 때면 부검 사진을 보며 마음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저와 갈등이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잔혹하고 초라한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제 자신을 보잘 것 없거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고 그런 생각으로 타인의 존재조차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고인과 똑같은, 아니 더한 고통 속에서 죽어서 속죄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을 사랑할 준비가 되지 못했기에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겠죠. 부디 고인이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겨진 유가족 분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지옥 같은 아픔을 반드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 못난 죄인도 감히 살아가려 하는데 제발 이겨내서 제가 힘닿는 한까지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타인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모든 아픔을 제게 묻고 유가족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외에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이해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힘이 되는지 알게 해 주고 긍정적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해 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인간의 가장 끝자락까지 추락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해 주고 또 사람에 대해 다시 신뢰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준 너무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고인과 유가족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워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과거와 비슷한 삶을 살며 지옥 같은 시간 속에 방치되어 있을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비극 없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보니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살인사건이 방송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많은 관심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사회의 당연한 관습처럼 자리 잡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이미 늦어버리기 전에 지금 제가 느낀 이 구원의 손길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글을 적으면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죄인이 잘 살아보겠더니 속에서 천불이 나지는 않을까? 제가 죽어도 고인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제가 아무리 무거운 중형을 받아도 그것은 저의 고통이지 유가족의 상실감을 없애드리지는 못하니까요. 살아서 속죄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적고 나니 유가족 입장에서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고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성장한 인간이 되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받고 고인의 묘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마음이 유가족께 닿지 않겠지만 20~30년이 지난 후에라도 유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넓은 아량으로 저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가 되면 유가족이 용서했음에도 발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관련 착안점(下)



- I. 기초조사, 조사전체를 좌우한다!
- II. 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유형
- III. 기초조사 관련 쟁점 및 판례의 분석
- IV. 신속·적법한 기초조사를 위한 착안점
- V. 기초조사 관련 기타 쟁점에 대한 검토
- VI. 맺음말: 사건은 살아 있는 생물이야!



4) 자술서 필수 포함 내용

- ① 6하 원칙에 의거싸움의 원인, 동기, 경과 등이 자술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 ② 싸움의 발단, 개요에는 누가 먼저 욕설을 시작했는가, 누가 먼저 싸움을 유발했는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가, 상대방의 대응여부 등을 자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 ③ 싸움의 발전 전개의 모습 기록
욕설의 여부, 고성 발생 여부,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여부를 자술서에 담도록 한다. 욕설을 한 사실 여부, 큰 소리로 소리쳐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 여부, 물리적 접촉, 폭행으로 진행여부를 자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 ④ 수용동근무자나 수용관리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여부
싸움이라는 사건과는 독립하여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이라는 독립한 하나의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 지시불이행이라는 사건이 추가됨으로서 '싸움과 지시불이행이라는 실제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자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근무자가 사전에 "수용자 간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사전 교육한 사실 여부 및 교육받은 사실 여부, 싸움 현장에서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싸움 중지 등)에 불응한 사실 여부를 자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5) 자술서 작성과정의 감독

- ① 가장 중요한 목격자는 수용관리팀장이 직접 만나 싸움의 경과 등을 신속하게 구두로 파악 후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때 수용관리팀 교위, 기동대 등과 효과적 분업이 필요하다.

- ② 당직계장이나 소장 결재시간, 동정관찰보고 시찰 작성 등 문서작성시간에 쫓기어 대충 작성하기보다는 차라리 퇴근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자술서의 '마지막 무인'을 반드시 정확하게 받도록 한다. 근무자 모르게 다른 수용자가 무인을 날인하지 않도록 근무자가 무인 날인 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 특히 싸움이나 폭행사건을 차후 검찰에 송치하거나 향후 '국가 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정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자술서 작성자 본인의 무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처럼 재판에서 자술서 작성과정 시 입회한 직원의 무인증명이 매우 중요하다.
- ④ 제출한 자술서의 진술을 반복하여 재차 작성하는 경우, 처음 작성했던 1차 자술서를 폐기하지 말고, 2차 작성한 자술서임을 표기해 두어 진술 및 심경의 변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규율위반행위 유형별 자술서 받기에 있어 착안점¹⁾

1) 싸움

- ① 의료과 진료 실시
외견상 상처가 없더라도 해당 수용자 문진결과 조금이라도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있다면 그리고 싸움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다면 의료과 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의료과에서 진료를 먼저 받아서 진료기록부에 진료사실 및 진료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갈비뼈 손상 등).
- ② 폭행과 말싸움의 경계 구분
상호 간에 구타나 폭행은 대체로 부인하므로 어떤 형식이든 신체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욕설이나 행위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한다(개새끼야!,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아래 가격 등).
- ③ 목격자 확보
참고인으로 목격자는 두 사람 이상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쌍방의 주

1) 심간택 교위(전주교도소 보안과), 2018.9.20. 법무생 지식행정 기사, "교정사교별 자술서 받기 요령" 참조 후 편집함(2019.5.14. 21:00 법무생 지식행정 검색)

장이 엇갈릴 때는 목격자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쌍방의 주장이 일치할 때는 목격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나 향후 조사의 증점조사 시에 진술을 반복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목격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④ 최초 싸움 인지 후 수용동근무자의 싸움제지사실을 반드시 기재
최초 싸움 인지 후 현장에 도착한 담당근무자의 정당한 지시 내용, 싸움 제지를 위한 싸움 당사자에 대한 분리 노력 등을 기재하여 담당근무자의 초동대처의 적절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⑤ 가족의 연락처 기재

자술서 말미에 접견금지 사실을 고지할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연락을 원치 않을 때는 "가족 연락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게 한다.

2) 일방적 폭행

①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 조사

피해자는 일단 의료과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 후 기록을 남긴 다음, 피해자를 먼저 조사해서 가해자의 폭행사실 및 본인의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여야만 폭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② 피해자의 폭행 피해 신고 여부 기재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 피해 신고 여부에 관하여 자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폭행사실에 대한 담당근무자의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의무 내지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목격자 확보의 중요성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보다 목격자의 진술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대체로 부인하므로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목격자는 가능한 한 2인 이상 확보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목격자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④ 폭행사건의 '현장훈계' 허용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용서할 때에도 차후에 상처의 악화나 가해자와의 관계 악화로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폭행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조사수용하여 공식적 처리절차에 편입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특별한 상처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현장훈계의 필요성이 매우 커 이를 활용할 경우가 있다. 이때 반드시 각서를 작성하여 받아 놓거나 자술서에 '아프거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가해자를 진정으

로 용서하며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수용자 종이신분장'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가해자 및 피해자 거실의 분리 수용

현장훈계를 활용하든 아니면 공식적 조사수용을 하든지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거실을 분리시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현장훈계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용서하는 경우 훈계의 조건이나 용서의 조건으로 가해자를 전방 조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거실에 계속 수용하여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5. 자술서 받기가 곤란한 경우의 '대안적 방법'의 모색

싸움이나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데다 다른 증거가 없고 거실 내 수용자의 진술만이 존재한다면 참고인 진술로서 목격자 자술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가 자술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이거나 지적능력이 미약한 경우, 문맹은 아니지만 자신의 관찰결과를 문장으로 작성하여 표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노령으로 인한 자술능력이 저하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 대서의 경우

① 대서가 가능한가? : 대서 근거규정에 대한 탐색

형집행법 시행령 제68조는 "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²⁾고 규정하여 목격자 자술서의 교도관 대서의 근거규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계지침 제267조도 "수용자가 소송서류 등의 대서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대서를 요청한 수용자에게 읽어 주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게 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³⁾고 규정하여 자술서 대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② 대서 과정

③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대화, 질문, 심문 시행 및 자술서 대서에 대한 목격수용자의 동의 확인

2) 형집행법 시행령 제68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3) 수계지침 제267조(소송서류 등의 대서)
① 수용자가 소송서류 등의 대서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② 작성한 서류는 대서를 요청한 수용자에게 읽어 주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게 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상대방 및 목격자를 통하여 사건 내의 대략적 내용과 자술서 대서를 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역할 내용을 확인 후

⑦ 수용동청소부가 대서하거나, 수용팀장이나 수용팀 교위가 워드로 작성한 후(대필) 읽어서 확인

⑧ 관련 대필 사실을 기록한 후에 완성 후 첨부한다.

2) 샘플의 제시 후 옮겨 적기 : 조사수용 목적이나 현장순계의 경우만 이용

먼저 해당 조사대상 참고인의 진술내용, 사건관계 정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수용관리팀장이 한글워드프로세서로 대략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해당 참고인으로 하여금 근무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형사입건송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후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되도록 지양하도록 한다.

3)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는 경우 : 수용관리팀장이 직접 진술조서를 받아서 시찰에 첨부

'조사실에 부탁'하여 미리 '진술조서 양식'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술서 형식이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격자가 문맹이거나 자술능력은 떨어지지만 사건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고 진술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는 만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간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취하도록 한다.

6. 근무보고서 작성 관련 착안점

1) 담당근무자 및 출동한 기동대의 근무보고서

담당근무자나 특히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기동대직원의 협조를 얻어 보호장비 사용과정 등을 기록한 추가적인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2) 근무보고서 작성 시 주의점

① 목격자 자술서 등과의 시간, 장소, 근무자의 조치 등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근무보고서상에 기술된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사건의 내용 및 전개과정이 목격자 자술서상의 그것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진술과 내용의 일치성을 전제로 수용관리팀장의 동정관찰 보고 시찰 작성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조치에 대한 왜곡 등 내용 마사지의 지양

향후 형사입건송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형사법정에서 검사, 변호인의 증인신문 시 담당근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참석하여 근무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제 진실과 상이하게 근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무보고서는 근무자가 조치하고 실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향후 송치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문제수용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근무보고서와 목격자자술서, 체증의 결과와 일치하는 근무보고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③ 근무보고서의 대필문제 및 대리서명의 자제

시간에 쫓기거나 하는 경우 수용관리팀장 등이 근무보고서를 대필하거나 담당근무자의 근무보고서를 메일로 송부받은 후 근무보고서의 확인 도장이나 서명을 담당근무자가 하지 않고 수용관리팀장 등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차후 근무보고서가 징벌위원회에 징벌요구서류의 일부로 제출되거나 형사입건송치서류로 소송서류의 일부로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리작성이나 대리서명 등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V. 기초조사 관련 기타 쟁점에 대한 검토

1. 분리수용의 문제

징벌대상자에 대한 분리수용은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필요 시 조사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조사거실이 아닌 일반거실에 분리수용할 수 있다. 징벌대상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 일정한 경우에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 모두 징벌대상자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사기간 중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또는 금지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⁴⁾ 쟁점은 폭행의 가해자는 형집행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분리수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폭행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1) 폭행 가해자 : 처우제한 상태로 조사수용거실에 분리수용

2) 폭행 피해자

① 원칙 : 처우제한 없이 조사수용거실이 아닌 제3의 다른 혼거실이나 독거실에 분리수용

기존 거실 내 목격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 조사실의 중점조사의 진행에 따라서 폭행 피해자에서 쌍방폭행

4) 형집행법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으로 사건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기존 거실에서 분리하여 처우제한이 없는 상태로 제3의 다른 혼거실이나 다른 독거실에 분리수용함이 필요하다.

② 예외 : 처우제한 없는 분리수용함이 없이 원래의 목격자들과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④ 가해자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폭행 등 혐의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반성의 빛이 뚜렷한 경우, ⑥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모두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⑦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보는데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는 분리수용이 요건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굳이 피해자를 다른 거실에 분리수용할 필요가 없이 원래의 피해자가 수용되었던 '본 거실'에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2. 진정실 또는 보호실에 분리수용하는 경우

진정실 또는 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조사수용과 병행하여 징벌대상수용자의 신분으로 진정실이나 보호실에 분리수용하는 경우와 ② 일반 수용자를 조사수용과는 무관하게 진정실이나 보호실 수용요건이 충족되어 진정실이나 보호실에 순수하게 수용자를 보호차원에서 수용하는 경우로서, 여기서의 쟁점은 진정실 또는 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는 실익, 구분의 실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 진정실 및 보호실 수용

보호실은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진정실은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반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2) 보호실(진정실)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가능 여부

	징벌대상수용자	일반수용자	비고
보호실	① 보호실 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95조] ② 분리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① 보호실 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95조]	
진정실	① 진정실 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96조] ② 분리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① 진정실 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96조]	
처우제한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 적용하여 처우제한 가능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 적용이 불가능하여 어떠한 처우제한도 불가능	

3) 소결

조사수용이 된 징벌대상수용자 신분으로 보호실(진정실)에 수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 법제 하에서는 보호실(진정실)에 수용된 일반수용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우제한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정 실무상 일반수용자 신분으로 보호실(진정실) 수용요건이 충족되어 보호실(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운동의 일지 정지, 불펜 등 필기도구의 제한 등 각종 '처우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의 교정 관련 법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비한 상태여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3. 폭행 피해자의 경우, '수용자 조사부' 등재 여부

폭행 피해자의 경우, 과연 폭행의 가해자처럼 조사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수용자 조사부'에 등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폭행의 피해자'는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대상자의 개념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 관련 규정의 검토

수계지침 제221조 제1항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수용자 조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부에 등재를 필수적 절차로 요구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2호는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면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징벌대상행위의 개념적 지표로 규정하고 있다.

2) 소결

① 원칙 : 수용자 조사부 등재 불필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2호와 수계지침 제221조 제1항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면 폭행 피해자에 불과한 수용자는 수용자 조사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폭행사건의 성격과 폭행 피해의 정도 그리고 ①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임이 분명한 경우, ② 가해자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폭행 등 혐의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반성의 빛이 뚜렷한 경우, ③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모두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④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보는데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피해자를 수용자 조사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다.

② 예외 : 수용자 조사부 등재 필요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초동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일지라도 조사실의 증점조사에서 쌍방폭행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수용자 조사부'에 등재하여 사건의 발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조사기간 산정의 '기산점'의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사기간을 1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쟁점은 조사기간의 기산점을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여기서 '조사를 시작한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1) 관련 규정의 검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⁵⁾은 조사기간 중 처우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처우제한이 이루어지는 조사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큰 사안인 것이다.

2) 가능한 견해의 대립

① 규율위반행위 조사시작 기준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의 정의, 즉 조사기간은 “수용자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 말한다”에 가장 물리적으로 접근한 견해이다. 구두조사, 자술서 받기 등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② 조사거실 입실 기준설(=처우제한 시작시점 기준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서 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이유는 조사기간 중 처우제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텔레비전 시청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조사거실 수용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③ '수용자 조사부' 등재시점 기준설

수용자 조사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이 결정되어 종결되었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등기부와 같은 공식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부에 등재한 시점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기간의 기산점을 삼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 소결 : 수용자 조사거실 수용(입실) 기준설+조사부 등재설

결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0조 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조사를 시작한 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① 제1설인 규율위반행위 조사시작설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언의 의미에 가장 충실할 수 있지만 조사를 시작한 시간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조사가 시작된 시점과 조사가 종료된 시점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소 혼동의 우려가 없지 않다.

② 결국, 제2설인 수용자 조사거실 수용(입실) 기준설과 제3설인 조사부 등재설의 절충에 의한 해결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조사기간의 기산점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실제 징벌대상수용자에게 조사기간 중 처우제한이 존재하고 그 처우제한이 가해진 기간 동안 징벌집행에 산입한다는 데 있으므로 제2설을 적용할 필요가 크다.

③ 따라서 제2설인 수용자 조사거실 수용(입실) 기준설에 입각하여 조사기간의 시작점을 기산하되, 조사수용거실에 입실한 시점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조사부에도 등재하여 제2설과 제3설의 기준 시점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징벌대상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 요건(자살, 자해 우려, 타인에 대한 폭행·위해 우려,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등)에 해당되어 보호장비를 사용할 상황이라면 징벌대상수용자에게 자술서 작성을 기대할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징벌대상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사용 관련 혹은 조사수용 관련 기초조사의 일환이든 어떤 명목이든 자술서를 받으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 하자.

1) '동정관찰보고 시찰'상의 보호장비 사용사유와 '보호장비사용심사부' 기재의 일치성 확보

간혹, 특히 야간근무 시에 보호장비사용심사부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 중에 있는 징벌대상수용자에 대한 처음 동정관찰보고

시찰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 동정관찰보고 시찰을 확인한 후 애초의 처음 시찰 내용의 보호장비 사용사유를 확인하고 보호장비사용심사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자술서 받기에 연연하지 않기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어 보호장비를 사용할 상황이라면 징벌대상수용자에게 자술서 작성을 기대할 정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징벌대상수용자에게 자술서를 받으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3)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 주의할 점

보호장비 사용 시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동정관찰부에 보호장비 사용이유, 고지 여부, 시간, 의무관의 건강상태 확인 여부 등의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 주는 등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징벌대상수용자의 처우제한 : '텔레비전 시청제한'의 문제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서는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사수용되어 징벌이 결정되기 전 단계의 신분인 징벌대상수용자에 대한 TV 시청제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쟁점은 형집행법 제48조를 징벌대상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나이다.

1) 판례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조사수용 중이거나 징벌처분을 받고 독거 수용된 자의 경우, 조사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흥분하거나 감정이 나빠져, 일반 수용자보다 자살, 자해, 소란,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 등을 손괴하는 사례가 많은 교정현실에 비추어 교정사고에 이용되거나 손괴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텔레비전의 시청 규제의 불가피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지처분이라는 징벌에 더하여 이중으로 이 사건 시청 금지라는 제한을 과하는 것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조사수용 중인 징벌대상수용자 혹은 금지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의 시청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텔레비전 시청제한과 관련된 '보고자 의견란' 작성 방법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존중하여 형집행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되 시찰의 '보고자 의견란'에는 “갑작스런 조사수용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이 크고,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 등을 손괴하는 등 교정사고에 이용되거나 손괴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므로 형집행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고”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한다.

VI. 맺음말 : 사건은 살아 있는 생물이야!

수용관리팀장 차원에서 기초조사과정에서의 착안점 위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규율위반행위에 대응하고 이미 발생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문서화 작업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초조사의 결과 현장훈계나 공식적 조사수용으로 편입이든 항상 '사건의 흐름'을 주시하고, 수용관리팀장으로서 내가 처리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실, 고충처리팀 등과 '효과적 피드백'을 통하여 내가 수행했던 기초조사의 적실성과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그에 바탕하여 유사한 사건의 기초조사에 대한 효과성을 향상하는 자료로 사용하였으면 한다. 수용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조사실의 증점조사 그리고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통한 징벌의 집행 등 일련의 처분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치밀한 문서화 작업만이 빈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국가소송, 인권위 진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우리 모두를 법률적 분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본다.

[참고 문헌]

1. 2019. 2.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실무 1
2. 2016.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관계 법령집
3. 법무부 교정본부, 2018 교정통계연보
4. 법무부 교정본부(분류심사과), 교정판례집(상)
5. 서울지방법정청, 2018. 교정관련 소송사례 해설집
6. 법무부 교정본부(서울구치소), 2019.1. 교정 조사실무
7. 이백철, 2015. 교정학, 교육과학사
8. 이윤호, 2015. 교정학, 박영사
9. 정진수, 2014. 교정학, 진원사

5)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0조 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교정본부는 7월 24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주)플렉스시스템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 시스템」,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은 초정밀 위치확인 기술과 헬스케어 센서가 내장된 손목 착용형 '수용자 스마트밴드'로 수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용자 신체의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 주는 통합 시스템이다.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재실 및 심정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도 교정본부는 교정현장에 첨단 정보통신기술(CT)을 적극 도입하여 과학적인 수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교정본부 여성 캐릭터 이름 공모 실시

교정본부는 새롭게 개발된 여성 캐릭터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7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름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 총 1,325명(캐릭터 이름 305개)이 응모하였다. 여성 캐릭터 이름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 가운데 총 5개를 후보작으로 선정하였다. 교정본부는 최종 후보작 5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후보작 '보드미'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 캐릭터의 이름을 보드미로 확정하였다. 앞으로 리뉴얼된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는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및 시범운영 실시

교정본부는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구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수용자 외부 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가 노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시범운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일반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조끼

개선 스마트접견 전면 시행

교정본부는 기존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에 스마트폰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보완·개선을 완료하였다. 스마트접견 시스템은 7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개선된 스마트접견 시스템은 모니터링 및 자동 녹음녹화 기능이 추가되어 접견 시 직원 입회 불필요하며, 기존 수형자 신청 방식에서 민원인 예약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완료

6월 30일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완료되었다. 기존에 일반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서울동부구치소는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로 리모델링되었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이다. 삼각형의 출입구, 초록과 노란색을 활용한 벽체와 인형, 동화책 등의 소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을 완화하고, 수용자도 가족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청렴골든벨 행사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7월 1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였다. 청렴골든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과 관련된 주제를 서바이벌 OX 퀴즈로 풀어가는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은 상품권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청렴과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학생 참관 행사 개최

서울구치소는 7월 11일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참관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교정행정 및 교정시설 수용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수용동을 체험하며 법 집행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경험하였다.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국악한마당' 교화공연행사 개최

안양교도소는 7월 8일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를 위한 국악한마당' 교화공연행사를 개최하였다. 교화공연은 (사)한국판소리 보존회 강남지부 소속 송죽예술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다. 이날 판소리 '사랑가' 대금산조를 시작으로 한국무용, 각설이타령, 남도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수원구치소는 7월 10일 대회의실에서 발달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불규칙한 근무 패턴으로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문의가 직원의 인바디를 검사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수를 측정한 뒤 대사증후군·식이요법·비만에 대해 상담해 주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서울 송파 지역 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구치소 사랑나눔장학회는 7월 12일 인근 송파 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서울마천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등 총 5개 학교에 재학 중인 15명의 학생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근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혈액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를 진행한 한마음 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보유량이 매우 부족한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 혈액 공급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국군교도소 직원 참관 행사 개최

여주교도소는 7월 17일 국군교도소 직원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교정시설의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기결수용동, 작업동,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았다. 이는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덕원여자고등학교 현장직업체험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7월 12일 덕원여자고등학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소를 둘러보면서 교정시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교정공무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교도소는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직업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성폭력·성희롱 예방 직장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7월 1일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성희롱·성폭력 등의 개념, 유형별 사례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소개하였다. 이에 직원들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개최

원주교도소는 7월 3일 외부 정문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앞서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을 홍보하는 전단지 전달한 바 있다. 퇴근 시간에는 오후운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직원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강릉소방서 초청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강릉교도소는 7월 24일 강릉소방서 응급구급대원을 초청하여 '생과 사를 가르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어떠한 심장질환 응급환자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실습하였다. 강릉교도소는 지속적으로 강릉소방서와 협력하여 합동소방훈련 및 응급처치훈련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직원 체육시설 조성

영월교도소는 7월 8일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탁구장을 조성하였다. 탁구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 것이다. 이에 동호회원 및 여러 직원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공직자 안보통일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7월 17일 정우복 안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알기, 최근 남북한의 상황, 안보의식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을 주제로 하였다. 이는 직원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배현승 2019년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소망교도소는 7월 3일 2019년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의 후원으로 실시되었다. 업체 8곳, 가색방 예정자 및 형기종료 출소 예정자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누적 52명이 면접을 진행하였고 6명이 채용의뢰서를 작성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이달의 모범교도관 포상식 및 격려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7월 24일 이달의 모범교도관 포상식 및 격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창장 전달식 이후 우수 직원들은 정우철 청장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이 주요 정책가치와 발전 지향점을 공유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구교도소는 7월 8일 직원교육실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심리상담사가 직접 직원들의 뇌파와 스트레스 상태를 검사하고,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피지컬 케어, 마음나래 프로그램 이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갑질 예방 및 소통과정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7월 25일 2019년 갑질 예방 및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갑질 없는 슬기로운 직장생활'과 '팔만대장경에서 배우는 열린 소통의 지혜'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갑질 행위를 확인하고 조직 내 갑질 사례에 대해 논의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경북북부재교도소 | 교사 김남규 진보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재교도소는 7월 4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진보초등학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경북북부재교도소는 2008년 교정장학회를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지역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창원지방검찰청 실무수습생 참관 행사 개최

창원교도소는 7월 18일, 25일 양일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4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관인들은 교정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거실, 작업장 등의 시설을 참관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 실시

부산교도소는 7월 10일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서울대학교 종교학 방원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공직자 종교차별 최근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공직자 종교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종교차별의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청렴역량강화 교육 실시

포항교도소는 7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청렴교육 전문강사 한동대학교 서병철 교수가 강의로 나섰다. 그는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윤리를 강조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옹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제54대 남상오 소장 취임식 개최

진주교도소는 7월 15일 제54대 남상오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남상오 소장은 1993년 7월 교정간부 제36기 교위로 임관된 후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사무관·예산사무관을 비롯해 서울구치소 복지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취임식에서 남상오 소장은 올바른 교정행정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구구치소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수성구 교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혈액검사, 신체계측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직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 건강 유지 및 관리 등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제41대 김진석 소장 취임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15일 제41대 김진석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김진석 소장은 1990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부소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등 주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취임식에서 김진석 소장은 직업훈련을 통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7월 2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하여 인도적 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날 행사는 원활한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2회 헌혈 행사를 개최하고 설·추석 명절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헌

'장터 가는 날' 전통시장 방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7월 24일 지역 전통시장인

진보시장을 방문하는 '장터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지역주민과 직접 교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식자재·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이는 교정 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제59대 양동석 소장 취임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7월 15일 직원교육실에서 제59대 양동석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전북 익산 출신인 양동석 소장은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취임식에서 양동석 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교정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수용자 냉면 DAY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2일 보안과 취사장에서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냉면 DAY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창녕주민교회 정석중 목사 등 34명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였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번 냉면 DAY를 통해 평소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다며 만족해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수용자에게 생수 5천 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16일 법사랑 청소년 한우리 위원회에 생수 5천 병을 기부받았다. 기부받은 생수는 일련 다음 7월~8월 혹서기에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생수 기증 행사 후 울산구치소는 법사랑 청소년 한우리 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경주교도소는 7월 10일 강당에서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심리상담사는 직원들의 뇌파와 스트레스 상태를 검사하였다. 피지컬 관리 전문가는 직원들의 체형을 검사한 후 바른 체형 유지와 유연성 회복을 위해 스포츠마사지 등 재활마사지를 진행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총렬여자중학교 장학금 전달

통영구치소는 7월 17일 총렬여자중학교 모범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통영구치소는 전 직원이 참여한 봉사단체인 '통영사랑나눔회'를 2007년 6월에 발족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인적·물질 지원을 한다. 이날 장학금 지급 또한 12회째를 맞았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밀양위원회 참관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및 밀양위원회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및 실제 형 집행 절차를 알게 되었으며, 올바른 교정행정을 이해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수용자에게 삼계탕 기증

상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7월 12일 초복을 맞이하여 수용자를 위해 삼계탕을 기증하였다. 또한 7월~8월 혹서기에 주기적으로 얼음 생수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교정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환경정비작업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7월 23일 지역 친화적이고 청결한 직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사 및 청사 주변 환경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장마철 고온 다습한 무더위 속에서도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화단정비 등을 하며 보람된 구슬땀을 흘렸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앞으로도 업무 시간을 쪼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국방대학교 고위공무원 참관 행사 개최

대전교도소는 7월 18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교육 중인 고위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관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앙통제실과 중앙감시대, 수용동, 공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노인수용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청주교도소는 7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이동 헌혈차량을 통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헌혈 행사는 최근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혈액이 부족해져 마련되었다. 김응분 소장은 "직원들이 헌혈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제59대 서수원 소장 취임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7월 15일 제59대 서수원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에서 서수원 소장은 직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한 근무자세로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과 행복한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수용자 교화공연 및 영화상영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7월 15일 무더위로 지친 수용자의 심신을 이완하기 위하여 교화공연 및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노래공연 및 색소폰 연주를 진행하고 2부에서 '극한직업' 영화를 상영하였다. 수용자들은 다채롭고 흥겨운 내용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직원 건강검진 실시

공주교도소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날 일반건강검진 및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검진을 동시 진행하여 직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원들은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및 전문적 의료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2019년 상반기 업무 추진 성과 공유

충주구치소는 7월 2일 월례회 시간을 이용하여 2019년 상반기 업무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날 인력운영 효율화 및 직원식당 이전 공사 등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상반기 주요 교정사고를 되짚어보며 원인과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 사항과 교대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제43대 김재익 소장 취임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7월 15일 제43대 김재익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에서 김재익 소장은 법과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수용관리를 강조하고 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용

수용자 가족사랑캠프 행사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7월 6일 수용자 가족사랑캠프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의 목적은 가족의 수용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수용자 4명 및 가족 17명이 함께 모여 가족애칭 짓기, 공동만다라, 문패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보리미 준법교실 강연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7월 11일 서산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교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보리미 준법교실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은 법질서 교육과 교도관이 하는 일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제22대 최종수 지소장 취임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7월 15일 제22대 최종수 지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에서 최종수 지소장은 행복하고 소통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황찬영 유관기관장 정책간담회 참석

광주지방교정청은 7월 4일 광주시청에서 주최한 광주 국가기관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내 미결수용자의 효율적 처우를 위한 구치소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직원 인권 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7월 4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김재윤 교수가 인권의 관심 분야 및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광주교도소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에 대한 많은 논의와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정재형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전주교도소는 7월 17일 직무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제일니스 마음나래 양홍식 등 5명의 전문가는 뇌파검사·상담, 피지컬 케어, 스트레스 교육, 맥파 측정을 실시하여 장기간 격무로 누적된 직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순천교도소는 6월 25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나래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바른체형 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 5명이 방문하여 피지컬 케어, 심리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직원 정신건강 교육 및 스트레스 해소법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제51대 김춘오 소장 취임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7월 15일 제51대 김춘오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에서 김춘오 소장은 직원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 확립과 품위 유지, 수용질서 확립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과 법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청렴하고 사고 없는 목포교도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국립민속국악원 '달리는 국악무대' 공연 개최

군산교도소는 6월 28일 대강당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의 '달리는 국악무대'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격조 높은 우리 전통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정서순화를 돕는 장을 마련하였다. 김임택 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청탁금지법 OX 퀴즈 대회 개최

제주교도소는 7월 1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탁금지법 OX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은 평소에 헛갈렸던 청탁금지법 사례 등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로써 한층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길로 갈 수 있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정문 차량출입문 확장 공사 완료

장흥교도소는 7월 1일 협소한 정문 차량출입문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장흥교도소는 2014년에 신축 이전한 시설이지만 정문 차량출입문이 좁아 대형 호송차량 및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웠다. 이번에 무사고로 정문 확장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농가 돕기 운동 참여

해남교도소는 7월 5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구매 운동에 동참하였다. 직원들은 서로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 결과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해남교도소 직원 일동은 다가올 장마와 태풍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약속하였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참관 행사 개최

정읍교도소는 7월 18일 교정시설 유지에 희망하는 지역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입인구 증가 등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소개하였다. 남원시청 관계자들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정읍교도소는 향후 교정시설에 대한 남원시청의 문의와 지역주민 참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교정공제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 실시

교정공제회는 7월 24일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교정공제회는 이 법 시행을 계기로 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군교도소

삼계탕 Day 개최

국군교도소가 7월 25일 소 내에서 여주 강원도민회가 주최한 삼계탕 Day를 개최하였다. 여주시 강원도민회는 국군교도소 장병과 수용자를 위해 부대에 방문하여 삼계탕 250그릇을 직접 조리하였다. 조리한 삼계탕은 국군교도소 장병과 수용자에게 전달되었다. 여주시 강원도민회는 "언제나 교정교화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다하는 국군교도소 장병들과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변호정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 교육으로 수용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신입 수용자 업무 담당자로 신입 수용자에게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사항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교육하여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정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용자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불안하고 긴장된 채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가 안정을 취하고, 규칙에 따라 수용생활하며 적응할 수 있게 도왔다.

서울

대구

정신질환 수용자 · 생활 부적응자를 면밀히 상담하여 수용질서 확립

치료거실 수용동 야간근무 시 정신질환 수용자 및 생활 부적응자의 신상, 가족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고충을 해소하였다. 그런 한편 수용자들이 일과시간을 준수하고 거실의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도록 엄정하게 처우하여 수용질서 확립을 도모하였다.



안동교도소
교위 김문준



대전교도소
교위 장영세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서신 관리 및 명량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회복지과 서신 업무 담당자로 항상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서신에 동봉된 우표, 현금 등 각종 불허물품을 세밀하게 관리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였다.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부서원의 업무를 돕는 등 명량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전

광주

신속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로 교정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보안3부 수용자 전화 담당 근무자로 수용자 연출 시 감신 검색을 철저히 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통모·통방을 차단하여 수용자의 세력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신속한 업무 처리로 다수의 수용자가 원활히 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능동적 근무 자세로 수용자의 고충을 사전에 해결하였다. 또한 야간근무 시 세심한 순찰로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전주교도소
교사 최강용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오래전 우연히 만났던 교정공무원을 떠올리며

주부 석경덕

꿈 많던 20대 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장애아동복지시설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마음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마음이 가고 눈에 밝힌 아이가 있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그 아이의 곁을 지켜주고 싶어 가족처럼 잘 챙겨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찌다 보니 탈선을 했습니다. 제가 간호사 일을 그만 둔 지 몇 년이 지난 때라 자초지종을 몰랐어요. 병이 재발하는 바람에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다고 들었어요. 유일하게 잘 챙겨 주던 형들을 따라 자퇴하고, 구치소에 있는 어떤 형을 보러 간다고 털어놓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이를 달래고, 얼마 뒤 같이 구치소에 찾아갔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떤 교정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모습에 웬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미처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10년 전 우연한 만남을 떠올리면 교정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방문하게 된 민원인은 누구보다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이 민원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나 교도소가 어둡기만 한 장소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가와 주는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

“

교정공무원의 일상을 더 알고 싶어요

직장인 황승일

얼마 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법무부 교정본부의 게시글이 떴습니다. 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교정공무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니 제가 예상했던 교정공무원의 일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하루 온종일 어두운 얼굴로 교도소 안팎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교정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화려한 음악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나 검도, 유도 경기를 하는 무도대회도 열었고요.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저처럼 교정공무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정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난다면 많은 일반 사람들도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꿀 수도 있고요. 우연히 보게 된 페이스북 게시글. 이런 게시글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교정공무원의 일상을 공개해도 된다면 SNS에 짧은 동영상으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이는 교정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교도소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을 종종 보면서 교정공무원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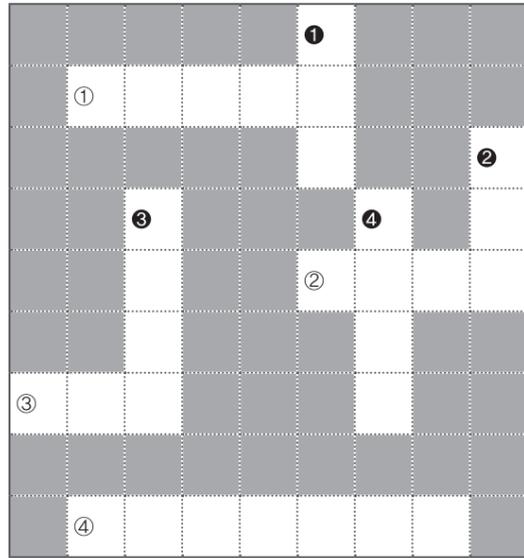


”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열쇠

- ① 교정본부는 수용자 ○○○○○를 활용한 수용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도구에 초정밀 위치확인 기술과 헬스케어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수용자 위치와 신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 ② 한마음 한 몸이라는 뜻으로, 서로 굳게 결합함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서로의 힘을 모아 성과를 이루거나 팀워크를 확인할 때 많이 쓰인다.
- ③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일부러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가리킨다. 공격적, 적극적이라는 뜻의 영단어 어그레시브(aggressive)가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 ④ 이 3법은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정공무원 보건복지 기본법안'을 일컫는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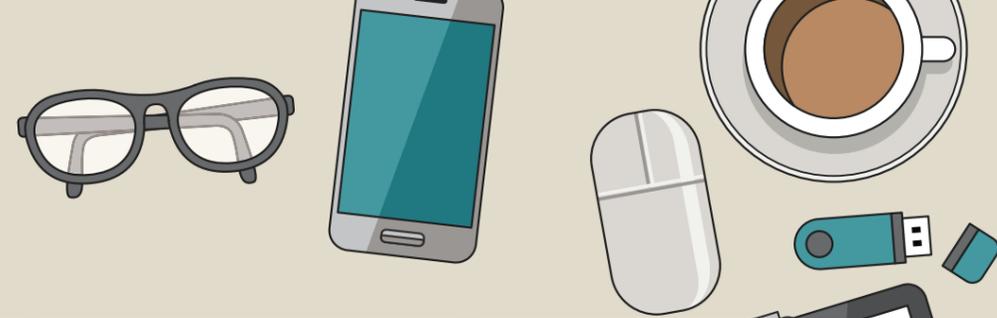
- ① 교정본부가 리뉴얼한 캐릭터는 교정행정 홍보와 국민 소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로 개발한 여성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
- ②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원·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교정행정 관련 ○○○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 ③ ○○○○ 실험은 아이의 인내심과 통제력을 평가하고 이를 미래의 성공과 연관 짓는 실험이다.
- ④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과 명구를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인내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도 담겨 있다.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는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1. 기억할 일이 있을 때 즉시!

메모를 언제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기억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즉시 메모하는 것이 좋다. 필기구와 메모용 수첩 등을 항상 휴대하자.

2. 바쁠수록 적어라!

할 일이 많을수록 메모의 효과는 배가된다. 메모한 일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두면 '깜빡증'으로 벌어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3.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매일의 할 일을 'To Do List'로 만들어 관리해 보자. 출근하자마자 해야 할 일을 꼭 적고 급한 것과 아닌 것에 번호나 순위를 표기하면 업무 관리가 더욱 용이해진다.

4. 떼어 버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라!

메모용지가 반드시 수첩일 필요는 없다. 포스트잇을 활용해도 좋다. 포스트잇에 체크리스트를 적고 업무 수행 후 떼어 구겨 보자. 작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메모 기술

기록하는 자가 승리한다!

정보 홍수의 시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해야 할 일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역사가 그러하듯, 결국 남는 것은 기록이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메모의 기술을 살펴보자.

5. 개인정보는 절대 주의!

메모를 할 때는 양식이나 용지, 형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만 메모를 버릴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메모라면 반드시 파쇄할 것!

6. 적어 둔 메모는 한 곳에!

급해서 아무 데나 휘갈기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써 둔 메모는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 '내가 어디에 적었더라?'가 찾아지면 메모는 하나 마나다.

7. 키워드나 기호를 활용할 것!

매일의 일과, 연락처 등 특정 패턴을 가진 정보는 키워드나 기호로 분류해 봐도 좋다. 해야 할 일은 'DO', 전화번호는 'T' 식으로 적으면 더 빠르고 쉬운 정리가 가능하다.

8. 중요한 사항은 눈에 잘 띄게!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자신만의 기호를 더해 두자. 별표도 좋고 동그라미도 좋다. 우선순위 표기를 위해 굳이 형형색색 펜을 갖출 필요는 없다.

9. 메모 시간을 마련하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일과 중 특정 시간을 메모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하루 10분씩 떠오르는 것들을 적고 분류해 보자.

10. 날짜와 시간에 주의할 것!

업무나 약속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록해 둔다. 추후 분류를 하기에 편리하고 기억을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월간 <교정>은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회화표현 코너가 있더라고요, 요즘 교도소에 많은 외국인들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적이 다양한 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정>에서 꼭 필요한 문장들을
각 외국어별로 알려주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동진 님(해남교도소 교사)

저는 매호 빠지지 않고 낱말퀴즈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꼼꼼
히 읽으며 정답을 찾는 재미가 있는데, 매월 알차고 유익한 내
용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저는 <교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관이 된 1981년 7월부터 <교정>은 제 벗이 되
어 주었어요. 당시 4x6배판 작은 사이즈의 <교정>은
유일한 읽을 거리였습니다. 글쓰기 실력과 직무, 교양
을 키우는 친근한 잡지였죠. 저는 국영(서울남부구치
소)에서 29년을 근무하다가 8년 전 여기 민영교도소
인 소망교도소로 왔어요. 나이도 예순 살이 넘었구요,
글쓰기에 대한 애착이 커 백일장 코너에 종종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글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어여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훈 님(소망교도소)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읽고 있
습니다. 7월호 블라디보스톡 기사를 읽고 나니 저도 한
번 가 보고 싶어졌어요. 내년에 다녀오려고 계획 중입
니다. 여행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정
보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승완 님(안양교도소 교위)



퀴즈 정답자

- 오수진 님(울산구치소 교위)
- 유동진 님(대전교도소 교위)
- 안재경 님(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사)
- 남궁동진 님(해남교도소 교사)
- 한빛 님(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도)

지난 호 퀴즈 정답

①동									
행			①푸	니	쿨	②라			
카									마
②페	도	라		③애					단
				덤					
③자	만	추		스					
술				④미	니	멸			
서				스					

싱크대 위 잠자는 텀블러
우리를 위해, 지구를 위해

잠자는 텀블러를 깨워라!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 참여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에게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월간 <교정>의 ‘교정은 행복을 신고’ 코너는 교정공무원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행복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힐링하고 싶거나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코너에 참여해 주세요!

• 교정공무원 근무 현장을 찾아가는 격려 행사 •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참여방법

월간 <교정> 내 엽서 이용, 이메일 _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월간 <교정> 내 QR코드 스캔